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COVID-19가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COVID-19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its Preparation Trade in  
Korea to China

濟州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周路遙

2021 年 2月

COVID-19가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COVID-19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its Preparation Trade  
in Korea to China

指導教授 洪在成

周路遙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0年 12月

周路遙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최윤석



委員

박진우



委員

홍제성



濟州大學校 大學院

2020年 12月



## <제 목 차 례>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3
<b>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b> .....	<b>5</b>
제1절 이론적 배경 .....	5
1. COVID-19의 경과 .....	5
2. COVID-19 확산에 따른 한·중 양국의 무역 조치 현황 .....	8
3. COVID-19가 한·중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 .....	17
제2절 선행 연구 .....	22
1. COVID-19의 영향에 관한 연구 .....	22
2. 기타 유사 사태의 영향에 관한 연구 .....	28
3. 포스트 코로나의 정책에 관한 연구 .....	30
<b>제3장 COVID-19가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b> .....	<b>33</b>
제1절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 현황 .....	33
제2절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 .....	38
1.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38
2.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52
3. 무역에 미치는 영향 요약 .....	60
<b>제4장 COVID-19 확산에 따른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 전략</b> .....	<b>63</b>
제1절 정책적 대응 전략 .....	63
제2절 산업적 대응 전략 .....	68
<b>제5장 결론</b> .....	<b>71</b>
제1절 결론 요약 및 시사점 .....	71

제2절 한계점 및 향후의 연구 방향 .....	73
참고문헌 .....	74
국문초록 .....	78
Abstract .....	79

## <표 목차>

<표 2-1> COVID-19 확진자수 .....	7
<표 2-2> COVID-19에 따른 중국의 조치 현황 .....	17
<표 3-1> 2017-2020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액 변화 .....	36
<표 3-2>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농수산물 수출 제품 Top10 .....	38
<표 3-3>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품목 HS1902 수출액 .....	40
<표 3-4>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품목 HS1905 수출액 .....	43
<표 3-5>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품목 HS0303 수출액 .....	46
<표 3-6>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품목 HS0306 수출액 .....	47
<표 3-7>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품목 HS2106 수출액 .....	50
<표 3-8>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농수산물 수입 제품 Top10 .....	52
<표 3-9>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품목 HS0307 수입액 .....	53
<표 3-10>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품목 HS0710 수입액 .....	56
<표 3-11>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품목 HS2005 수입액 .....	58

## <그림 목차>

<그림 2-1> COVID-19 확진자수 변화 추이 .....	8
<그림 3-1> 2017-2020년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수출입액 변화 추이 .....	37
<그림 3-2> 품목 HS1902의 한국對중국 수출 변화 추이 .....	42
<그림 3-3> 품목 HS1905의 한국對중국 수출 변화 추이 .....	44
<그림 3-4> 품목 HS0303의 한국對중국 수출 변화 추이 .....	47
<그림 3-5> 품목 HS0306의 한국對중국 수출 변화 추이 .....	49
<그림 3-6> 품목 HS2106의 한국對중국 수출 변화 추이 .....	51
<그림 3-7> 품목 HS0307의 한국對중국 수입 변화 추이 .....	54
<그림 3-8> 품목 HS0710의 한국對중국 수입 변화 추이 .....	57
<그림 3-9> 품목 HS2005의 한국對중국 수입 변화 추이 .....	60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는 COVID-19로 칭함)이 발생한 이후 지난 몇 달 동안 중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를 휩쓸었다. COVID-19가 발생한 후 중국과 한국은 긴밀히 협력하고 서로를 도왔으며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타났다. 중국과 한국의 공동 노력 덕분에 양국의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 전환점이 있었고, 양국 국민은 전염병 확산의 우려 중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전염병에 대한 공동 예방에서 한·중 협력의 정신은 국제 사회가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이 되었다.

COVID-19가 유럽과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여 동아시아 외부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분리 상황을 강화함에 따라 점차 다른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유럽과 미국 시장이 당분간 동아시아 경제의 수출에 대한 주요 의존이 될 수 없다면 동아시아 국가는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나는 국가 내부 시장의 확장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간 시장의 통합 및 확장이다.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은 대기업만이 탄탄한 기반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중소기업들은 시장 역량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중국이 세계 경제 침체와 중·미 무역 전쟁의 맥락에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지원이 될 것이며 지역 경제 및 무역 관계, 특히 일본과 한국의 경제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COVID-19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였으며 중국의 대외 무역 패턴은 큰 변화를 겪고 경제 상황을 관찰하는 선구자가 될 것이다. 중국은 국내 사이클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개발 패턴을 제안하고 국내외 이중 사이클이 서로를 촉진한다. 이것은 중국의 개발 전략의 주요 조정이다. 이는 중국이 내수를 확대 및 심화하고 주변 국가와 세계에 수요 측 개발 모멘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COVID-19의 영향으로 ASEAN<sup>1)</sup>은 중국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미



국과 유럽의 위상이 하락한 것은 큰 변화이다. 현재의 무역 발전 동향을 보면 한·중·일 무역이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가치 사슬 조정의 방향은 역내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4월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 동북아에 있었는데, 즉 한국과 일본이 합쳐져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St. Louis Fed(2020)의 연구에 의하면 COVID-19가 발발 후에 각국 정부가 전통 필수품인 식품(7.9%)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식품의 90% 이상이 특정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sup>2)</sup> 이런 무역보호주의가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COVID-19 발생 초기 방역 정책으로 첫째, 농업 생산 인원이 줄었고 둘째,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가동을 중단했으며 셋째, 물류 수송이 중단되어 중국의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따라서 일상 생활에 필수 물자는 대부분을 수입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중요한 경제 무역 파트너이며, 양국이 특별한 기간에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COVID-19가 발발한 이래 한·중 정부는 양국 기업이 일과 생산을 재개하고 산업 체인의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협력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COVID-19의 영향으로 정부 정책과 기업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거래 시스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COVID-19가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COVID-19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점차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여 한국 최대의 대외 무역 수출 시장이 되었다. 특히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 전제 하에 중국은 다른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COVID-19가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향후 양국 간의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을 촉진

1)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1967년 8월 8일 태국 방콕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10개 회원국이 있다.

2) St. Louis Fed, "International Trade Policy During COVID-19", Economic Synopses, 2020.

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COVID-19가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HS01-14) 및 그 조제품(HS15-24)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향후 양국 간의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안하는 데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COVID-19가 한국과 중국 간의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이 COVID-19 사태를 대응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COVID-19가 일어나고 확산하는 경과를 정리해보고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어떤 긴급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對중국 무역 수지가 정상적으로 나타난 기간과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COVID-19의 영향 기간으로 나누어 양국 간의 무역 추이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COVID-19가 한국과 중국 간의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셋째, 앞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분석하고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중국 관세청, 중국 상무부, 한국 무역 협회, 국가 통계 포털, 유엔 comtrade 데이터베이스, WTO 공식 웹 사이트 등에서 수집되었으며, 중국 외교부, 국가 보건위원회, 국가 이민 관리국, 문화와 관광부, 한국 질병 관리 본부, 한국 관광 공사, 법무부, 관세청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 보도 자료, 통고 및 기타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 그리고 본 연구의 범위 및 구성을 소개한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COVID-19가 일어나는 경과, COVID-19에 따른 한국이 對중국 무역 정책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무역 분야의 전문가들이 COVID-19를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선행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對중국 무역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며,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입 상품 Top10을 확인한 후에, 한국이 對중국의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품목별 수출입액의 변화를 제시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COVID-19가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COVID-19에 대한 응대 전략,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국 무역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제5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한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제1절 이론적 배경

#### 1. COVID-19의 경과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2019년 12월 8일 무한시(武漢市)에서 나타난 이후 폐렴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2020년 1월 9일 핵산검사법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결과 총 15건이 검출되었으며, 양성 환자 검체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전자 현미경으로 전형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형태를 보였다. 1월 12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에게 이번에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 정보를 공유하였다. 1월 20일, 무한시 고속철도역과 한구(漢口) 기차역 출입구에 온도측정기계가 설치되며 무한을 떠나거나 도착하는 승객의 체온이 38°C를 초과하면 추가 테스트가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기차역 근처의 슈퍼마켓 마스크는 품절되었다.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1월 23일 10시부터 무한시 공항, 기차역, 고속도로 등이 폐쇄되어 무한시 봉쇄 대책을 실시하였다. 즉각적으로 무한의 비즈니스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는 일시적으로 폐쇄된다.<sup>3)</sup>

세계보건기구(WHO) 2월 11일의 전염병 보고서에 따르면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로 인한 질병을 명명하였다. 무한시는 2월 11일부터 모든 주거 커뮤니티의 폐쇄 관리를 구현하기로 결정하였다. 2월 16일, 호북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모든 마을, 커뮤니티 및 주거 지역은 가장 엄격한 24시간 폐쇄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는 통지를 발표하였다. 외부 차량과 인력을 엄격히 통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으면 출입을 금지한다. 또한 거주 지역 사람의 외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의약품 및 생필품의 중앙 조달 및 유통을 채택해야 한다. 무한시방역센터(武漢市新型冠狀病毒肺炎防控指揮部)는 2월 17일부터 외출 바코드가 없으면

3) 호북성인민정부(湖北省人民政府) <http://www.hubei.go.cn>

외출을 금지한다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를 채택하였다.

COVID-19가 발발한 이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중국을 비롯한 COVID-19 발명 국가 사람이나 발명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입국금지 등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2월 2일 17시부터 지난 14일 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미국 국민과 영주권 자격을 가진 사람의 직계 친속 제외)의 입국을 임시적으로 금지하고 주중영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시켰다. 한국은 2월4일부터 호북성 발급한 여권을 가진 중국 사람과 지난 14일에 중국 호북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 가능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그 이후에 모든 관광 비자 발급이 중단되었다. 3월 9일부터 중국과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발급한 모든 유형의 단일 및 복수 비자가 일시적으로 무효화되고 홍콩, 마카오, 한국의 비자 면제 정책이 중단된다. 일본 재류 카드를 소지하고 재입국 수속을 마친 외국인은 일본에 입국할 수 있으며, 격리 조치는 이전 기사와 동일하다. 중국 및 한국 출발 일본행 항공편은 나리타공항 또는 간사이국제공항에만 착륙 할 수 있었다. 중국과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선박의 여객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중국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호북성 무한시의 전염병이 잘 통제되고 4월 8일부터 무한시에 대한 봉쇄가 해제되었으며 같은 날부터 호북성 보건 '녹색 코드'를 보유하는 사람은 질서 있게 무한시를 떠날 수 있다. 무한에 대한 '봉쇄 해제'는 중국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전반적인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중국에게는 반역 병이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2월19일 한국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대규모 확산 및 단체 감염이 발생했으며 이후 한국 COVID-19 확진자의 수는 매일 두 배로 증가하였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먼저 관련 물자에 대한 통제를 명령하고 마스크, 고글, 방역보호복 및 기타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였다. 한국 국내의 확산 예방하는 동시에 해외 유입 확진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입국 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입국 후에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교들이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각종 시험을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COVID-19 대응 전략을 실시하였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

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성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표 2-1> COVID-19 확진자수<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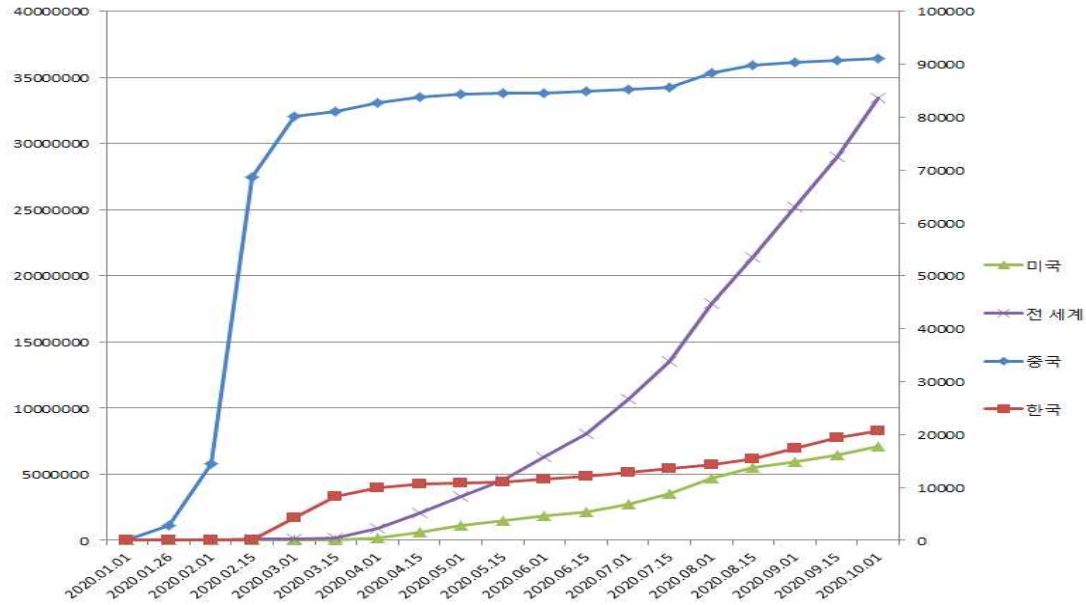
날짜	중국	한국	미국	전 세계
2020.01.01	-	-	-	-
2020.01.26	2,761	-	-	-
2020.02.01	14,411	-	-	-
2020.02.15	68,584	29	-	69,210
2020.03.01	80,174	4,212	69	87,343
2020.03.15	81,077	8,236	3,499	153,546
2020.04.01	82,724	9,976	206,207	932,605
2020.04.15	83,797	10,613	641,397	2,062,520
2020.05.01	84,388	10,780	1,125,305	3,343,302
2020.05.15	84,478	11,037	1,480,975	4,538,413
2020.06.01	84,597	11,541	1,842,243	6,312,038
2020.06.15	84,823	12,155	2,166,685	8,036,964
2020.07.01	85,263	12,904	2,744,570	10,652,037
2020.07.15	85,697	13,612	3,565,476	13,543,731
2020.08.01	88,301	14,366	4,729,242	17,878,081
2020.08.15	89,761	15,318	5,478,009	21,390,636
2020.09.01	90,422	17,346	5,936,506	25,226,995
2020.09.15	90,734	19,362	6,462,069	28,999,495
2020.10.01	91,082	20,652	7,115,425	33,484,300

출처: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한국 질병관리본부, 존스 홉킨스 대학, WHO.

위의 <표 2-1>을 정리하면 COVID-19 확진자수의 변화 추이가 다음 <그림 2-1>과 같이 나타난다.

4) 각 나라가 본국의 확진자 수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따로 수집하였다. 중국의 확진자수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한국의 확진자수는 한국 질병관리본부 포털에서 공시된 보도참고자료, 미국의 확진자수는 존스 홉킨스 대학 홈페이지에서 공시된 데이터, 전 세계의 확진자수는 WHO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등에 따라 정리된 것이다. 비어 있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이터가 없는 것이다.

<그림 2-1> COVID-19 확진자수 변화 추이



출처: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한국 질병관리본부, 존스 홉킨스 대학, WHO.

## 2. COVID-19 확산에 따른 한·중 양국의 무역 조치 현황

COVID-19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통제되었지만 중국 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WHO포탈에 따르면 11월 29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215개 국가나 지역에서 확산되어, 누적 확진자수는 61,866,635명, 사망자수는 1,448,990명이고 그중에서 지난 7일 동안 신규 확진자수는 3,935,330명, 신규 사망자수는 69,916명이었다. 전 세계 치사율은 3.0%이며, 그 중에서 유럽지역은 5.6%, 미주지역은 3.6%, 서태평양지역은 2.2%, 동남아시아지역과 아프리카지역은 2.0%이다.<sup>5)</sup>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11월 30일 기준으로 중국<sup>6)</sup> 누적 확진자수는 93,577명, 사망자수는 4,750명, 신규 확진자수는 12명, 신규 사망자수는 0명이었다.<sup>7)</sup>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1월 30일 0시 기준으로 한국 국내 신규

5) WHO, “COVID-19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 2020.11.29.

6)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을 포함한다.

7) 衛生應急辦公室, “截至11月30日24時新型冠狀病毒肺炎疫情最新情況”, 中華人民共和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2020.11.30.

COVID-19 확진자수는 414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29,651명에 달하였다. 현재 격리 중 사람은 6,050명, 누적 사망자는 526명이다. 8)

전 세계 현재의 COVID-19 상황을 보면 확진자수는 경제 발전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즉,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백만 명당 확진자수가 더 많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전된 선진국가에서 인구의 유동성이 일반적으로 높고 국제화의 정도도 높아 전염병의 감염 및 확산을 쉽게 일으킬 수 있다. 둘째, 일부 경제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현재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노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이로 인해 확진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는 경제 발전도상국의 보건 의료 제도는 상대적으로 후진하고, 대규모 바이러스 검사 능력이 부족하여 감염되지만 확진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도된 확진자수가 적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여 많은 국가에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였다. 대내적으로는 군중 모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그룹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경 통제를 구현하고 엄격한 여행 제한을 채택한다.

2000년 이후 국제 무역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WTO포탈에서 공시된 데이터에 따르면 총 세계 무역량은 2000년 6조 7,000억 달러에서 2018년 19.7조 달러로 증가했으며 글로벌 무역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경제 간의 많은 경제 및 무역 마찰로 인해 국제 무역 장벽이 증가하고 글로벌 무역 성장이 정체되었다. CPB의 World Trade Monitor<sup>9)</sup>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무역량은 2018년에 비해 0.45%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각국은 교통 통제 및 인구 흐름 제한과 같은 조치를 지속적으로 채택하여 세계 경제 및 무역 환경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세계 무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10)</sup>

8)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30일, 0시 기준)”, 질병관리청, 2020.12.01.

9)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https://www.cpb.nl/en/worldtrademonitor>

10) CPB, <https://www.cpb.nl/en/worldtrademonitor>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방역 조치를 실시해 왔다. 세계 각국 간의 경제체제와 자원이 다르고, 무역 수입국과 수출국이 상의하고, 그리고 각국이 COVID-19에 대한 대응 내용, 정책과 수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COVID-19의 영향은 동시에 혹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은 한국과 중국이 COVID-19에 따른 무역 조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한국의 무역 조치 현황

2월 7일 COVID-19 대응 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한국 기획재정부장 겸 부총리 홍남기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순조롭게 납품될 수 없는 경우 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이 부족하여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 라인 폐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 수입 통관 조치를 취하고 한국 공장의 특별 초과 근무 생산을 신속하게 승인하여 자동차 부품 수급을 안정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한국 정부는 중국 공장이 가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국 지방 정부와 협의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 부품 수입에 대해서는 24시간 긴급 통관을 승인하고 입항 전 수입 신고를 수락하고 신속한 수입을 적극 준비하고 있었다.<sup>11)</sup>

5월 20일 백승주 국회의원은 ‘COVID-19로 인해 어려움과 피해를 입고 있는 구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긴급 수출안정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무역보험공사는 COVID-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총액 1천억 원, 기업 당 최대 2억 원까지 긴급 수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미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수출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며 각종 복잡한 절차들로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허울뿐인 지원책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백 의원은 “정부는 추경에서 긴급 수출안정자금 지원총액과 기업당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또한 절차적 지원 및 심사 시스템을 간소화하여 적기에 수출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sup>12)</sup>

11) 한국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V) 관련 업종 4차 현장간담회(경제단체·기업인) 개최”, 2020.02.07.

COVID-19 발발 초기의 2월 1일 한국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여러 무역 수출에 관한 대응 정책이 제안되었다. 13)

첫째, 물류·통관 신속 지원. 중국 내륙운송 현황과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할 경우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중국 현지 통관애로 추진단’을 통해 對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선주·화주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임차 보증금 신규지원 및 해외노선 유류비 등 운영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조기 조업재개 지원. 대일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한다. 기업 요청 시 취급시설 안전관리 일대일 현장밀착 컨설팅, 등록 전 과정 지원 등을 우선 지원한다. 조업재개에 필요한 보건용품 수급을 위해 해외조달 가능 기업을 발굴, 전문무역상사 등을 통해 중국 진출기업에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셋째, 수출 기회 확보. 수출 마케팅은 작년보다 14.4% 증가한 5천11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 구축해 국내 수출 상담회 및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수출활력추진단 2020’을 새로 가동해 3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수출 중단방지·다변화·역량강화에 집중한다.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계획된 지원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취소·연기·변경된 전시회는 신남방·신북방으로 대체, 하반기 일정 조정, 화상 상담회 대체 등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넷째, 분쟁 대응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중재비용을 감면하고 무료 알선·상담 제공 등 분쟁해결 서비스를 신속 지원한다. 또 피해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필요시 납기 지연 등 불가항력 관련 사실관계 조사·확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법적 분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12) 구미 발전 스토리, “백승주 의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긴급 수출안정자금(코로나19 관련 수출기업 금융 지원 정책) 확대 필요 강조”, 2020.05.20.

13) 산업종합저널, “5년간 1.1조원 투자, 킨텍스 제3전시장 등 9개 전시장 신·증축 추진”, 2020.03.02.

다섯째, 글로벌 공급망 안정적 확보 지원. 한국 정부는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COVID-19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 위기대응시스템을 가동하고 유턴 활성화, 수입국 다변화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수급관리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급망의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한다.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예상치 못한 글로벌가치사슬(GVC)이 붕괴하면 곧바로 현행 소재·부품·장비 추진체계와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가동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턴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리스크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이테크형, 범용 품목형, 기초 원료형별로 차별화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섯째, 무역 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수출마케팅이 가능한 전시 인프라를 확충한다. 앞으로 5년간 1조 1천억 원을 투자해 킨텍스 제3전시장 등 9개 전시장을 신증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 상품도 출시한다. 성장 역량을 갖춘 중견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반도체, 에너지, 유통 등 업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동반수출도 지원한다.

## 2) 중국의 무역 조치 현황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에 의하면 중국의 1분기 GDP는 -6.8%의 성장을 보였지만 2분기 GDP는 3.2%, 3분기 GDP는 4.9% 성장을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세계 경기 반등이 기대되고 와해되었던 물류망이 복구되고 있어, 거시경제와 조달 및 물류체계의 중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 건강관련 식료품의 수요 증가, 비대면 선호 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방식은 장기간 지속되며 식음료 시장을 변화시키는 구조적 요

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sup>14)</sup>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에 있었고 2020년 1월부터 일련의 무역 촉진 및 규정 준수 조치를 시작하였다. 의료 용품 및 식품의 유입되는 무역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중국은 또한 세계 중간 상품 무역의 거의 20%를 공급하는 수출 무역 흐름에서 COVID-19의 방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의 역할과 COVID-19에 대한 대응으로 무역 흐름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조치를 취한 최초의 카운티인 중국은 연구해야 할 설득력이 있는 사례이다. 실제로, 격동의 시기에 무역을 촉진한 중국의 경험은 다른 국가의 대응 계획에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 및 관리에 있어서는 의약품, 의료시설 및 필수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친 물류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공급망 중단을 방지하고 비즈니스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2020년 1월 이후, 중국은 COVID-19 대유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현하기 시작하였고, 국제 무역에 대한 전자 플랫폼, 즉 광범위하게 싱글 윈도우와 '인터넷+세관' 플랫폼을 의존한다. 전자 도구는 효과적인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염병 예방을 보장할 수 있다. COVID-19의 영향을 받아 도로 운송 및 항공 운송으로 운송되던 일부 제조 상품 및 전자 제품이 점차 철도 운송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중국의 대응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CR Express (청두)는 269개의 열차를 운행하여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송 능력이 80%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해관총서(GACC)<sup>15)</sup>은 COVID-19 발생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보장하고 사업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즉, 대외 무역 기업이 영업을 재개하기 시작함에 따라 10 가지 촉진 조치, 중국 철도 (CR) 운송을 보장하는 10가지 조치, 그리고 항만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및 통관 촉진을 위한 조치이다.

첫째, COVID-19 확산 방지 및 관리를 위하여 여러 조치를 채택하였다. 지체 없이 의료 용품을 확보하려면 중국 세관 및 기타 규정 준수 당국이 다음과 같은

14) 國家統計局, “2020年三季度國內生產總值(GDP)初步核算結果”, 2020.10.20.

15)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P. R. China.

몇 가지 예외적인 계획을 채택해야 하였다.<sup>16)</sup>

이번 COVID-19 위기 동안 중국은 전염병 구호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관세청은 다음을 채택하여 구호화물의 방출 시간을 45분으로 단축하였다.

가. 전국 주요 항구에서 연중무휴 24시간 통관을 제공하는 특수 카운터 및 녹색 차선

나. 수입 의약품 및 의료 기기 도착 시 픽업 서비스

다. 선내 점검 또는 방문 점검, 상황을 악용한 불법 행위 방지

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세관의 신속한 통관 절차:

수입업자에 의한 '2단계 신고 + 사전 신고' 및 상하이 세관에서 적절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등록 시 해제한다. 칭다오 세관이 선언을 채택하기 전에 공개한다. 수입업자와 의사소통하고, 전체 통관 절차를 추적하고, 창락 공항 세관 에서 신속한 검사 및 방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담당자를 지정하는 독점 서비스 창을 열린다. 닝보 공항 세관에 도착할 때 물품의 적시 하역, 창고 보관 및 집계를 보장하기 위해 세관, 화물 보관소 운영자 및 항공사 간의 사전 조정한다. 마. 우편 및 특송 서비스를 통해 수입되는 의료 품목에 대한 통제 절차 최적화  
바. 전염병 방지 물품, 운송 또는 계정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신속한 행정 처벌 절차. 관련 당사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경우 세관은 팩스, 이메일, 휴대 전화 등 수신 확인이 가능한 기타 수단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과태료에 관한 법적 기록을 전송할 수 있다.

세관은 전염병 방지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통해 수입업자를 안내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설정한다. 하문해관(廈門海關)은 수입 업체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거래 업체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방역 및 방역을 위해 기증 된 수입 물자 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면제된다. 기증 된 의약품에 대한 위생 등록 이 중단되었다. 관할

16)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商務部印發應對新冠肺炎疫情做好穩外貿穩外資促消費工作的通知”, 商務部新聞辦公室, 2020.02.18.

당국에서 발급한 인증서에 따라 세관은 백신, 혈액 제제, 시약 등 COVID-19 예방, 진단 또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배포할 수 있다.

세관은 이제 이러한 보급품 확보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염병 방지 물품의 수입 기록을 유지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에서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동물 제품의 수입 또는 중국으로의 마스크, 보호복 및 소독제와 같은 공급품의 수출을 제한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대상 기업에 조기 경보 정보를 보내고 대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호 무역 및 경제 협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와의 의사소통 및 조정을 강화한다.

둘째, COVID-19는 글로벌 무역 흐름을 늦추고 결과적으로 수입업자는 투입물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재고가 부족하다. 중국은 공급망 중단을 방지하고 사업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채택하였다.

이완 절차 및 요구 사항을 채택하였다.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도로 이니셔티브’의 틀에서 중국은 기업이 입/출구 항구 또는 현지 세관에서 CR Express로 운송되는 상품에 대한 통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확인을 위해 종이 문서가 필요한 경우 종이 문서 제출 전 승인 시 세관에서 전자 사본을 수락할 수 있다 .

현장 감사의 대안으로 세관은 비디오 또는 전자 데이터 전송을 통해 현장 외부 감사를 수행하거나 기업에서 제공 한 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발병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 등록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온라인 신청이 필요한 상호 제외).

농산품, 장비 및 원자재 등의 수입을 신속하게 촉진하기 위해 중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짧은 격리 승인 프로세스를 실시한다. 예약제 녹색 차선을 취한다. 인공 지능 영상 인식 기술 적용과 함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철도 입/출항 비침입 검사 장비, 검사장의 운영자 또는 운송 운영 책임자를 현장에 맡기면 검사 중 수하인이 없다. 수하인은 이메일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세관에 부재 사실을 알릴 수 있다. 해충이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테스트 우선순위 지정한다. 실험실 테스트 대신 타사 인증서, 테스트 보고서 또는 품질 및 안전에 대

한 자체 선언을 수락한다. 수출 전 통제 및 인증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수출 상품에 대한 검역 증명서, 폐기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및 위생 증명서 발행을 보장한다. 그 목적은 수출 과정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등록된 수출업체에 대한 행정 승인 및 기술 무역 장벽 처리 교육을 할 것이다. 필수 서비스 기능 확대를 통한 국제 무역 단일 창 적용을 강화한다. 특히 소기업, 중·소기업을 위한 통관 절차에 대한 안내·신고 오류를 최소화하고 절차상의 미준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회사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과 핫라인을 통해 세관 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국해관총서는 매니페스트 통합을 통해 신고 횟수를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하였다. 또한 거래자는 발병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거나 사업 재개 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지연된 신고에 대한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일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 할 수 없는 수입 기업은 최대 3 개월에 걸친 납부 일정을 제출할 수 있다. 연체료는 기업이 지급 일정을 준수 할 경우 면제 또는 감면된다.

수송 능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은 수송 허브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철도 운송 (예: CR Express)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 운송 운영은 복합 세관 구역 간의 국내 세관 운송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COVID-19로 인한 건강 위험과 경제적 결과를 완화하려면 조정 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 협력도 필수적이다. 중국은 CR Express와 함께 국가 및 지역의 세관 당국 간의 데이터 교환 및 정보 공유를 제안하였다. 또한 중국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표 2-2> COVID-19에 따른 중국의 조치 현황

조치 유형	조치 내용
COVID-19 확산 방지 및 관리 조치	상품 출시 가속화
	새로운 절차에 대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 향상
	관세 감소
	보다 유연한 위생 요건 채택
	기록 보관
공급망 중단 방지 조치	무역 제한에 대처
	이완 절차 및 요구 사항
	신속한 통관
	비용 절감
	물류 / 운송 능력 향상
	국제 조정

출처: 중국상무부(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http://www.mofcom.gov.cn/>)

### 3. COVID-19가 한·중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COVID-19 발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생산 및 생활 질서가 다양한 수준으로 영향을 받았다. COVID-19는 생산, 가공, 운송, 수출입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농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COVID-19가 한국 농수산업 및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농수산업 생산

한국은 농수산업 노동력이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COVID-19의 영향으로 많은 공장이나 기업이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지만, 도시 부문의 실업과 공공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귀촌을 선택했다. 따라서 농수산업 부문의 임시 고용 기회가 증가했다. 농수산업 부문의 고용은 증가했지만 노동력의 전반적인 질은 떨어졌다. 따라서 한국인 농수산업 노동력은 증가했지만 농수산업 생산의 효율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강수경(2020)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 여부는 한국의 농수산물 시장 및 생산 요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sup>17)</sup> 황

17) 강수경, “외국인 근로자 공급 제약이 축산 농가 잉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외식 외(2020:27)에 의하면 2020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비자(E-8, C-4)를 취득한 3,052명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지연되고 고용허가제 비자(E-9)를 취득한 6,400명 외국인 중에 720명만 입국하였다. 18) 이로 인해 한국의 전체 농수산업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 (2) 농수산물 가공

COVID-19의 영향으로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긴 가공식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COVID-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의 실천됨에 따라 매장 방문과 외식의 비중이 감소하고 가정 내 조리 및 배달 외식의 증가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물류의 치질과 물류비의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바이어들이 온라인 주문량이 늘어난다. 이와 같이 한국 농식품 반가공 식품산업의 성장으로 농수산물 판매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 (3) 농수산물 운송

COVID-19의 영향으로 매장이나 식당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통해 온라인 주문해서 집에서 조리하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 국내의 물류 및 운송에 큰 부담이 되었다. 또한 여객기 운항이 감소하고 화물기가 대체 운항 등으로 수출량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는 농수산물의 품질(신선도)이 떨어지게 한다. 따라서 과일과 채소 등 단기간 내에 판매되어야 하는 신선 농수산물의 수출에 활용되는 항공의 결항으로 매우 큰 영향을 입었다. 비록 홍콩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항공 물류비의 상승으로 수출에 제약이 발생하였다.

#### (4) 농수산물 수출입

COVID-19의 확산에 따라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확대로 한국의 가공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김치의 감소량이 매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19) 현재까지는 국제 곡물 수급이 안정적이

18) 황의식 외, “코로나10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2020.7. pp.1-259.

19) 황의식 외, “코로나10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지만 국경봉쇄 및 이동제한, 국제 물류의 차질, 각국의 수출 제한 조치 강화, 환율의 상승 등에 따른 수입 단가 증가 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2) 다음은 COVID-19가 중국 농수산업 및 농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중앙 정부의 주도하에 모든 지역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주민들의 기본 필수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농수산물 유통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입했다. 2월에는 중국상무부와 유관 부서에서 《關於統籌做好生活必需品供應保障有關工作的通知》, 《關於推廣疫情防控時期保障生活必需品供應典型做法的通知》 등 농수산물 공급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형적인 경험과 관행을 적극 홍보하였다. 다음은 농수산업 생산, 농수산물 가공, 농수산물 운송, 농수산물 수출입 등 네 가지 측면에서 COVID-19가 중국의 농수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농수산업 생산

2020년 설 이후 봄갈이가 시작되고 농민들도 사용할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자재 구매를 시작하겠지만, COVID-19의 영향을 받아 올해 봄갈이가 더 큰 압박을 받는다. 한편으로는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자재 구매 경로가 원활하지 않다. 일부 지역의 교통 혼잡 및 사람과 사람 간의 감염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농업 생산 자재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가게는 폐쇄 상태에 있었다. 채소와 과일 등 단주기적 농수산물 생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다른 한편, COVID-19가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농부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왔다.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마을에서 마을과 도로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다른 마을에서 토지를 임대하는 많은 재배자들은 생산 자재를 운반할 수 없었고 농업 생산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았다. 봄갈이 시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대형 재배자도 많지만, COVID-19로 도우미 찾기가 어려워 농민들이 농업 활동을 할 수 없었다. COVID-19의 심각성으로 인해 시골에 대한 식물 보호 및 시골에 대한 기술과 같은 생산 서비스도 많은 지역에서 중단되었다.

COVID-19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로 확산되었고, 발발 기간이 농업 생

---

2020.7. pp.1-259.

산의 바쁜 시기와 맞물려서, 농수산업 생산의 원천에서 중국 농수산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농수산물 가공

농수산물 가공 기업의 대부분 생산 인력은 현지 사람이 아니다. COVID-19의 발생 시기는 중국의 전통 명절인 춘절과 겹치고 그 때 대부분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 있었다.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격리 및 폐쇄 정책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귀향의 일부 종업원은 공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또한 돌아가도 14일의 격리를 해야 하며, 이는 신속하게 생산에 투입해야 하는 농수산물 가공 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비록 농수산물 가공 인력이 정상적으로 생산에 투입할 수 있지만 생산에 사용되는 보조 자재와 포장재는 외부에서 구매해야 하며, 그런 기업들의 생산이 중단되었고 즉시 공급할 수 없어 농수산물 가공이 불가능하였다. 농수산품을 포장하지 않으면 운송 과정 중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수산품을 판매 시장에 배송할 수 없었다.

### (3) 농수산물 운송

일부 지역의 도로 폐쇄 정책으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을 출하 할 수 없거나 긴급하게 필요한 생산 자재를 반입 할 수 없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농수산물은 현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농부, 어부들은 필요한 생산물을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네트워크의 배송주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여전히 단기 미배송 또는 품질 상태 이었다. COVID-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완전 봉쇄의 도로 폐쇄 정책은 실제로 바람직하지 않았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농자재와 농수산물의 정상적인 유통을 재개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농수산물은 녹색 경로를 필요로 하고 원활한 유통이 있어야만 농부들이 희망을 볼 수 있다.

반면 물류 및 유통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건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 전염병에서 신종 크라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슈퍼마켓, 레스토랑, 쇼핑몰과 같은 혼잡한 장소에 자발적으로 머물기를 거부

하고 자가 격리 조치를 채택하기로 했다. 집에서 격리된 소비자는 수요를 줄이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온라인 쇼핑에 의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배송 산업에도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 (4) 농수산물 수출입

수출 농수산물 공급망의 생산 진행 및 수출 배송이 지연되었다. COVID-19 발발 초기에는 사람의 이동 제한, 기업의 업무 재개 지연 등 전염병 대책의 영향을 받아 수출 농수산물 공급망이 차단되고 사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 중국 국내 COVID-19 예방 및 통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예방 및 통제의 비상 대응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물 및 농자재의 운송 및 물류, 세금, 크레딧, 작업 및 생산 재개와 관련된 일련의 구호 정책을 적시에 발표했으며 실행 효과가 분명해졌다. 농수산물 공급망은 대부분 회복 중이지만 생산 진행과 수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외국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수요가 감소했다. 한국, 일본, 미국, EU 등 중국 농수산물의 기타 주요 수출 시장은 심각한 COVID-19 확산을 겪고 있다. 미국과 대부분의 EU 국가는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국경 봉쇄, 집회 회피, 공공장소 폐쇄와 같은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므로 중국으로 수입된 농수산물은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계속되고 더 많은 농업 수출 시장에서 더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하면 중국의 농업 수출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수산업 수출 기업의 법적 위험과 경제적 손실이 증가했다. 전염병이 발발 한 후 세계 보건기구는 "국제 여행과 무역을 방해하기 위해 불필요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제안했지만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제한 조치를 채택했다. 중국상무부에 의하며 10개국 이상이 중국산 육류, 수산물 및 기타 농산물 수입을 중단했으며, 50개국 이상이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엄격한 검역 조치를 취해 수출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에 대한 운송 및 통관 시간을 연장하므로 수출 계약 위반 위험을 높이고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의 보존 기간 및 유통 기간을 연장했다.

농수산물 수입원의 안정성이 감소했다. 미국, EU, 호주 및 캐나다와 같은 중국

의 대두, 육류, 곡물 등의 주요 수입 시장은 현재 심각한 전염병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새로운 농수산물 수입 대상국을 찾아야 한다. COVID-19의 확산은 국가 간 농업 무역의 연속성을 방해할 것이며 검역은 COVID-19의 확산을 막는 주요 수단이다. 또한 글로벌 농수산물 공급망은 국가의 전염병 충격의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키고 중국의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입의 안정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만약 농수산업 수입 시장에서 더욱 심각한 전염병이 나타나고 세계 농수산업 공급망이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 중국의 농수산업 수입 안정성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COVID-19가 한·중 양국 간의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대한 영향을 정리하면 첫째, 농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의 부족은 국제 무역에 있어서 불충분한 공급량으로 이어지고 간접적으로 무역량을 감소시킬 것이며, 둘째, 물류 및 운송의 중단으로 인해 제 시간에 교부할 수 없어 무역 마찰이 발생하여 직접적으로 무역량을 줄일 수 있다.

## 제2절 선행 연구

### 1. COVID-19의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김우정(2020)에서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중지가 되고 무역량도 급감하며 한국에서 항만별 물동량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국내 항만에서 물동량 감소세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중국과의 교역은 증가했지만, 베트남이나 일본, 미국 등 무역국과의 교역은 감소했다는 것을 주목받고 있음을 하였다.<sup>20)</sup> 박희석 외(2020)에서 COVID-19가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사스와 메르스를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코로나-19의 전파속도가 더 빠르며, 경제활동의 회복은 더 오래 걸린 것으로 보여졌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서울 경제 및 전국 경제에 대해 큰 충격을 가져왔다. 먼저 소비자가 COVID-19로 인해 상층 하던 경제심리지수는 하락의 추세로 변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도 지속

20) 김우정, “코로나19 영향으로 8월 국내 무역항 물동량 하락세: 컨 물동량, 부산항 5.6%, 광양항 19.4% 감소. 인천항 10.3% 증가”, 한국해산문제연구소 월간해양한국, 2020(10), pp.98-100.

적인 하락세로 보여주었다. 동시에 COVID-19 로 인해 관광업에 관련된 여행사, 외식업계, 숙박업 등이 급감하고 큰 손해를 보았다.<sup>21)</sup>

서홍석·순병민·김충현(2020)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KASMO 모형을 통해 COVID-19 대유행 배경 하에서 한국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세계 및 한국 국내 경제 침체함으로써 한국 농업부문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하여 0.4~1.0% 감소했다. 또한, 화훼류 생산액 감소율이 가장 크며, 가금류, 채소류, 곡물류의 순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육류와 과실류의 생산액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은 COVID-19 확산으로 인해 환율 상승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는 베이스라인과 대비하여 4.4~7.6% 개선되며, 자금률은 상승하였다. <sup>22)</sup>

임송수(2020)는 COVID-19가 대규모 발발한 상황에 국제 식량 수급과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COVID-19의 발발로 인하여 농산물 수출 대국들이 본국의 식량 공급을 확충하고 물가를 통제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무역 조치를 선언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비록 농산물 수입국들이 안정적인 수입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관세를 내리거나 수입 쿼터를 증가하는 등 수입 촉진 조치를 채택하더라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식량 무역이 정책 위험에 부딪칠 수 있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임송수(2020)는 1990-2008년 세계 무역의 추세와 2011-2018년 동안의 세계 무역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농산물 무역을 포함한 상품 무역에 대해 회복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sup>23)</sup>

張力 (2020) 은 중국의 대외 무역 발전 현황과 COVID-19 확산의 배경으로 한 대응책을 분석하였으며 COVID-19가 중국의 대외 무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4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첫째, 대외 무역 수출입 성장률이 하락했다. 둘째, 국제 주문이 감소하고 기업의 자본 사슬에 대한 압력이 증가했다. 셋째, 열악한 물류로 인해 무역 비용이 상승했다. 넷째, COVID-19가 무역 보

21) 박희석 외,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20, (297), pp.1-32.

22) 서홍석, 순병민, 김충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20(189), pp.1-22.

23) 임송수, “코로나-19가 국제 식량 수급과 무역에 미친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9(4), pp. 101-117.

호주의를 강화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중국의 발전 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온라인 대외 무역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거래 형식과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재정 지원을 늘리고 기업 자본 체인에 대한 압력을 줄여야 한다. 넷째, 무역 편리화와 간편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24)張力(2020)의 논문은 코로나가 중국의 수출입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의 대응책 제안했지만 직면한 실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물류가 원활하지 않고 무역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새로운 무역 모델 육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온라인 무역 플랫폼과 새로운 무역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물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COVID-19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격리 조치를 취하여 해운 및 항공 효율성이 매우 낮아졌으며 특히 항공편 취소된 후 물류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葛穎恩, 楊佳琳(2020)은 시장 개발에 대한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차이 방법을 사용하여 절대 데이터와 상대 데이터의 조합을 통해 건식 벌크 운송 시장, 탱커 운송 시장 및 컨테이너 운송 시장의 특성과 영향 요인을 각각 연구하였다. 중국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 상황을 바탕으로 COVID-19의 추세를 가정하여 운송 시장의 변화를 추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COVID-19의 지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면 건식 벌크 운송 및 유조선 운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컨테이너 운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중 유조선 운송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더 강하다. COVID-19가 장기간 지속되면 전반적인 경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되거나 증가 할 것이며 해운 산업은 교통량 감소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전염병의 종식과 함께 경제와 해운 산업은 새로운 급속한 발전의시기에 접어들 것이다.25)葛穎恩, 楊佳琳(2020)의 논문은 한·중 무역에 관련한 연구가 아니지만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한·중 양국 무역에 있어서 물류 운송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김나영·안덕근(2020)에서 COVID-19 사태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세

24) 張力, “疫情背景下中國對外貿易發展現狀及對策分析”, 經濟觀察, 2020, pp.35-36.

25) 葛穎恩, 楊佳琳, “基於對比分析的新冠疫情對航運業的影響研”, 交通信息與安全, 第三十八卷, 2020, pp.10-18.

계 보건의료체제의 상호연관성을 보여주고 디지털 의료기술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과 인구고령화가 부단히 발전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 대해 소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건의료교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단일한 경제 시장체제나 국가 정부 조치만 의지하면 불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국제통상체제에서 보건의료 통상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환기하는 데에 목적이다. 이어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제 조식의 역학을 논의하고서 관세 조치에 관련된 쟁점 및 비관세 무역 조치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은 COVID-19 사태에서 향후의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보건의료산업 개방성을 더욱 추진하고 국내 산업의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산과 기술 역량을 높여야 한다. 셋째, 보건의료산업을 발전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해야 한다.<sup>26)</sup>

곽동철(2020)에서 COVID-19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므로 국제무역도 큰 타격을 받는 배경하에서 국제질서 변화를 논의하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국제 통상 규범의 현황을 알아보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잡히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COVID-19 후에 대표적인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는 GVC의 붕괴, 수출통제조치와 국경봉쇄조치 확산,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무역협상 등으로 개술했다. 이에 WTO 신임 사무 총장의 선출 및 상소기구의 개혁, 상계 조치 규범 및 보조금 개정 등 형성을 이루어야 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sup>27)</sup>

구양미(2020)에서 COVID-19 확산으로 경제공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CVG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지금 코로나19가 진행 중이라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COVID-19에 관련된 방역용품의 수출입이 급증하면서 무역 국가나 용품 특성의 차별화가 나타났다. 둘째, 한국 산업과 기업의 GVC와 글로벌 공급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서 리쇼어링이나 니어쇼어링에 대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은 한국 제조업 기반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26) 김나영, 안덕근, “보건의료 통상과 코로나 19 사태: 현황과 쟁점”, 국제지역연구, 2020, 29(2), pp.1-38.

27) 곽동철, “코로나19 이후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와 통상규범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통상법률, 2020(148), pp.76-113.



제시하였다. 28)

박성욱(2020)에서 COVID-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경제정의 목표는 이전에 안정적 '성장' 및 공정한 '분배'로부터 기업의 '생존' 및 '건강'으로 바뀌었다.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정책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둘째, 중소기업들이 불가피한 경제 둔화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필요한 경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로 경제 회복에 관련된 금리정책을 보완해야 할 준비를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역과 투자를 위해 외환자금을 안전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9)

오병기(2020)에서 COVID-19 확산이 지역경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COVID-19 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인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지역경제도 단시간에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예상이 된다. 본고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시기에 지역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적 영향은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런 충격을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민생지원을 통해 실업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했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제공했다. 셋째,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이다.30)

정대영·이수진(2020)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관광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관광수요가 급감할 뿐만 아니라 현유 여행 패턴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추측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관광지와 숙박 시설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광활동을 도입할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COVID-19의 확산 환경에서 관광업계에 맞는 관광패턴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관광객 실시간 이동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사전예약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의료관광을 기반하여 관광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은 소규모 근거리 여행지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

28) 구양미, “코로나19와 한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C)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20, 23(3), pp.209-228.

29) 박성욱,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및 정책 대응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29(6), pp.3-10.

30) 오병기, “코로나-19 지역 경제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정책 과제”, 한국자치학회 월간공공정책, 2020, 174, pp.61-64.

인다.<sup>31)</sup>

정승철(2020)에서 COVID-19 확산 상태를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등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노동자들 및 기업들이 정성적인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무너지고 세계적으로 무역량도 감소하였다. COVID-19 배경 하 글로벌 정세를 살펴보고 향후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및 경제 회복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sup>32)</sup>

沈國兵(2020)은 COVID-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여러 국가의 무역 제한 및 금수 조치를 촉발하여 WTO 체제 하의 국제 자유 무역 규칙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국가 간의 방역 물자 거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에 해를 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무역 규칙의 파괴로 인해 심각한 무역 방해 효과를 가지울 것이다. 코로나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는 한편, 주요 국가의 항공 운송 금지 조건부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역 제품 및 생활 제품에 대한 글로벌 무역의 활성화 및 자유화를 강화해야 하기에 국가 간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33)</sup>

St. Louis Fed(2020)는 비필수품보다 전통적인 필수품(식품 및 국방) 무역이 훨씬 균형을 이루었음을 밝혔다. 즉, 모든 불균형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인 반면 비필수품은 평균적으로 식품(-6.0%) 또는 국방(-13.9%)보다 더 큰 무역 적자(-14.9%)를 나타낸다. 의료 용품 무역은 비필수품과 전통 필수품 모두보다 무역 불균형이 더 크다는 점에서 드물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비필수품보다 전통 필수품(국방 7.2%, 식품 7.9%)에 대해 더 높은 평균 관세(5.4%)를 부과한다. 반면 의약품 수입에 대한 관세는 1.7%로 절대적, 상대적으로 모두 낮았다. 또한 비관세 장벽은 비필수품보다 필수품에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다. 국방 상품과 식품의 90% 이상이 각각 특정 유형의 비관세 장벽의 적용을 받는 반면, 비필수품의 50%만 이런 비관세장벽의 적용을 받는다.<sup>34)</sup>

31) 정대영, 이수진, “코로나19, 여행의 미래를 바꾸다”, 경지연구원 이슈&진단, 2020, (419), pp.1-25.

32) 정승철, “코로나19(COVID-19)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과 2020년 하반기 세계경제전망”, 제주평화연구원 JPI정책포럼, 2020(6), pp.1-21.

33) 沈國兵, “新冠肺炎疫情全球蔓延對國際貿易的影響及紓解舉措”, 人民論壇·學術前沿, 2020, (007), pp.85-90.

34) St. Louis Fed, International Trade Policy During COVID-19, Economic Synopses, 2020.

Leibovici, F. & Santacreu, A. M.(2020)는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필수 상품이 국제 무역에 있어서 하는 역할을 연구하였다. 필수 상품과 비필수 상품을 포함하는 다 국가, 다중 섹터 모델을 고려하였다. 필수 상품은 기준 소비 수준에 비해 효용을 제공하며 대유행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각국은 자본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두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며 부문별 조정 비용에 따라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모든 품목은 무역 장벽의 영향을 받아 국제 무역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COVID-19의 영향을 확대하면서 그 영향은 필수 상품에 대한 국가의 무역 불균형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상품의 순 수입자는 대유행 기간 동안 순수출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나쁘다. 순수입 업체의 복지 손실은 무역 장벽이 높은 세계이며, 그 반대는 순수출 업체의 경우이다. 그러나 COVID-19가 닥치면 순수출 업체는 필수 상품 무역 장벽 증가로 이익을 얻는 반면 순수입업자는 무역 장벽 감소로 이익을 얻는다. 이러한 결과는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국가 간 무역 장벽 변화에 대한 예비 증거와 일치한다.<sup>35)</sup>

Shaun Tanger et al.(2020)에서 농산물 무역이 다른 분야만큼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WTO는 시나리오 전반에 걸쳐 수출 실질가치 -6.5%(V자형 회복), -11.2%(U자형 회복), -12.7%(L자형 회복)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농산물 무역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2020년 4월까지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입(수출)은 2019년에 비해 10.5%(2.8%)가 높았다.<sup>36)</sup>

## 2. 기타 유사 사태의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陳少輝(2003)는 SARS가 중국 안휘성(安徽省) 대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SARS가 수출 오더를 줄였다. 예를 들어 춘계 무역 박람회 기간 안후이 성 수출입 거래량이 약 75 % 급감했다. 둘째, SARS 유행으로 인해 향후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외국인

35) Leibovici, Fernando and Santacreu, Ana Maria. "International Trade of Essential Goods During a Pandemic" .Working Paper 2020-010B,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2020.

36) Shaun Tanger, et al., "Economic Impacts of COVID-19 on Food and Agricultural Markets", CAST Commentary, 2020.

투자 프로젝트 연기하게 되었다. 셋째, 일부 외국인 고객은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와 SARS 전염병에 대한 단기적인 심리적 기대에 대해 공포감을 느껴 수출 오더의 일부를 생산을 위해 다른 국가로 이전하였다. 이 일련의 영향을 응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무역 방식을 바꾸고 전자 상거래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국내외 상인이 방해를 받는 시기에 온라인 거래와 편지 및 전신 거래가 대외 무역의 주요 채널이 되었다. 수출입 기업은 전자 상거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 둘째, 소기업을 지원하고 가능한 한 빨리 수출을 촉진한다. 특히 소규모 수출 기업이 SARS 유행에 가장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룹이지만, 이들 기업은 향후 수출 성장을 위한 새로운 힘이 되므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 지원 측면에서 소기업에 더 많이 기울이고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며 국제 시장 진출에 대한 확신을 확고히 할 것이다.<sup>37)</sup>

黃兆銀(2003)은 SARS가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지체 효과로 인해 SARS 발발의 초기에 큰 영향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SARS의 부정적인 영향은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SARS의 발발로 인해 오랫동안 추진하였지만 많은 성과를 얻지 못했던 온라인 거래 방식이 주목을 받아 널리 보급할 수 있었다. 이는 보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거래 방법의 사용을 촉진하고 중국의 대외 무역 및 외국 투자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SARS는 중국의 대외 무역 상품 구조와 대외 투자 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었다.<sup>38)</sup>

焦知嶽(2003)은 SARS가 중국의 상품 수출 성장률과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율을 낮추었으며, 동시에 관광 및 항공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무역 분야의 외환 수입을 줄였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방역 전략과 관련하여 정부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 개방적이고 정직한 태도, 전염병에 대한 적시보고 및 데이터 제공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투자자들로 하여금 중국의 실제 상황과 SARS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취한 조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SARS 기간 동안 정상적인 비즈니스 접촉을 촉진하고 복원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가 기업의 온라인 판매 촉진 및 온라인 거래를 적극 지원

37) 陳少輝, “SARS對安徽省進出口的影響和對策”, SARS與經濟, 2003, pp.6-9.

38) 黃兆銀, “SARS挑戰中國對外貿易”, 武漢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3, 56(4), pp.408-409.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 통관과 같은 현대적인 방법의 적용을 더욱 촉진할 것을 요청했다는 정책을 밝혔다.<sup>39)</sup>

童商(2003)은 SARS가 중국의 가전제품 수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WTO 가입의 효과가 더욱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많은 전통 노동 집약적인 가전제품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며 WTO 가입 후 WTO 회원국들이 중국 가전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했다. 많은 공식 및 비공식 무역 제한이 크게 감소하여 중국 가전제품 수출의 상당한 성장을 촉진했다. 반면에 중국의 대외 무역 체제 개혁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및 여러 지역에서 채택한 일련의 정책 및 조치는 중국 가전제품의 수출을 자극하였다.<sup>40)</sup>

張壹 외(2003)는 SARS가 중국의 대외 무역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단기적으로 첫째, SARS는 최근의 다양한 무역 박람회의 개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새로 체결된 대외 무역 계약의 상당한 감소를 가져왔다. 둘째, SARS로 인한 국제적인 공황이 기존 주문의 이행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부 규제에 따라 대부분의 물자는 주로 SARS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SARS가 일부 수출 생산 계획의 정상적인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 장기적으로 SARS의 확산은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에 영향을 미쳐 중국의 대외 무역 발전 잠재력을 어느 정도 손상시켰다. 그러나 SARS는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국의 수출 생산 능력과 수입 수요는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sup>41)</sup>

### 3. 포스트 코로나의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김군수 외(2020)에서 COVID-19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가 큰 타격을 겪고 있음 밝혔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0.3%, 한국 경제는 -1.2%로 역성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무역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2020년 1분기, 한국의 수출은-1.4%, 경기도의 수출은 -6.3%로 감소하며, 대륙별에 따르면 중국과 유

39) 焦知嶽, “SARS對我國外貿的潛在影響”, 經貿論壇, 2003, pp.3-5.

40) 童商, “非典對我國家電出口影響有限”, 中國電子報, 2003, pp.1-7.

41) 張壹, 吳瑩, 汪壽陽, 徐山鷹, “SARS對中國進出口貿易的影響分析”, 管理評論, pp.23-27.

럽, 중동, 남미 등으로의 수출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제 형식을 기초하여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는 비대면 비즈니스와 온라인 서비스의 가속으로 디지털 경제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42)

김용준(2020)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의 식량 공급망을 영향하고 식품의 공급과 수요도 큰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예측도 있기 때문에 식량안보 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국제 교역 중단으로 수입 원재료에 의한 업체들이 식품 가격을 인상하는 우려가 커져져 있다. 국제물류시스템이 위축함으로써 살충제 등 중간투입재가 감하기 때문에 병해충해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의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43)

박상현(2020)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제질서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코로나 사태가 국제질서에 대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극단적인 변화와 혼란을 예측하였다. 마지막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제질서의 변화가 발생하겠지만 강대국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44)

이병민(2020)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자유무역이 중지되고 글로벌 환경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은 화해와 협력, 공존을 위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하는 현황 및 전망을 통해 발전 방향을 상정하였다. SWOT 분석을 하고 공격, 우회, 만회, 생존전략 등의 가증성을 논의하고 시나리오의 적성을 통해 관련된 대응전략을 마련했다.45)

이수진 외(2020)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각국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 5월11일부터 봉쇄 정책을 완화하였다. 영국 피터 리스 교수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현재 런던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42) 김군수, 성영조, 한영숙,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산업 전략”, 이슈&진단, 2020(411), pp. 1-25.

43) 김용준, 이수행, 박정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농업,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이슈&진단, 2020(415), pp. 1-25.

44) 박상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 국방정책연구, 2020, 36(3), pp.59-86.

45) 이병민, “포스트코로나 시대 접경지역 발전 전략”,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20, 23(3), pp.229-246.

기업 및 은행이 계속 악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독일 베를린에서는 3월 초에 첫 확진자가 나고 많은 수의 확진자가 클럽을 통해 전염되었다. 클럽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영업을 중단하는 대상이 되고 5월 중순에 댄스 플로어를 제외하고 클럽 내 식당에 한해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스페인은 ‘전략적 도시계획’을 사용하고 있다. 전략적 도시계획이란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임시로 공간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도시계획 방식으로, 도시 공간 활용 시간과 용도의 유연한 조절이 이러한 전략적 도시 계획의 특징이다. 이동성의 변화에 대한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코로나19의 환자와 사망자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사태와 대응에 대한 경해, 분석 및 평가 상당히 정치화, 양극화가 되었다. 일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노동과 생활 방식을 개혁함으로써 ‘역 산킨코아티’로 전화했다.<sup>46)</sup>

---

46) 이수진, 조현지, 김민지, 진광선, 주소윤, 이재용,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각국의 정책 동향”, 국토, 2020(6), pp.96-109.

## 제3장 COVID-19가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제1절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 현황

1992년 이전에는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량은 연간 약 30억 달러로<sup>47)</sup> 매우 적었는데 주로 홍콩을 통한 간접 무역과 소량의 국경 무역을 통해 실현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영국의 무역 발전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급속 시작 단계'와 2002부터 현재까지의 '고속 발전 단계'를 거쳤다. 전 단계의 후반기에는 1997-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sup>48)</sup>의 영향으로 변동이 있었고 후 단계는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sup>49)</sup>, 2015-2016년에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의 영향을 받아 단기적으로 급격한 변동을 보였다.

한·중 자유 무역 구역 협상은 2012년 5월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양국의 상품 무역에 대한 제도적 보증을 제공하고 전자 상거래,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금융 서비스와 같은 신흥 전략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표준화되고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공동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한·중 자유 무역 구역의 설립은 이정표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합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2015년 2월 25일 한·중 자유 무역 협정 전문의 최초 서명을 완료하고 협정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 시점에서 한·중 자유 무역 구역 협상이 완료되었다. 2015년 6월 1일 한·중 자유 무역 협정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어 한·중 자유 무역

47) 王俊生, “建交以來的中韓關係：動力，機遇與挑戰”，雲夢學刊, 2019, 40(5), pp.71-77.

48) 아시아 금융 위기는 1997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말한다. 1997년 7월 2일, 아시아 금융 혼란이 태국을 휩쓸었고 곧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한국, 중국 및 기타 지역으로 퍼졌다.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및 기타 국가의 통화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동시에 대부분의 주요 아시아 주식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는 아시아 국가의 대외 무역 회사에 영향을 미쳐 많은 아시아 대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을 일으키고 사회 및 경제 침체를 초래하였다. 그것은 아시아의 급속한 경제 발전의 현장을 깨뜨렸다. 아시아 일부 주요 경제국의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국가의 정치 상황도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였다.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 나라는 이러한 금융 혼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였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도 영향을 받았지만 중국 본토와 대만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49)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 기관의 파산, 투자 펀드의 강제 폐쇄, 주식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 혼란을 말한다. 글로벌 주요 금융 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위기를 일으켰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2006년 봄 이후 점차적으로 나타났고 2007년 8월부터 미국, EU, 일본 등 세계 주요 금융 시장을 휩쓸기 시작하였다.



지대 건설을 위한 시스템 설계가 공식적으로 완료되고 이행 단계가 곧 시작될 것이었다. 한·중 자유 무역 협정은 지역 경제 협력 조항을 혁신적으로 도입하여 중국 위해시(威海市)와 한국의 인천 경제 자유 구역을 지방 경제 협력 시범 구역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실증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5년 12월 9일 중국 상무부 차관 왕수원(王受文)과 주중 한국 대사 김장수는 외교 각서를 교환하여 한·중 자유 무역 협정이 2015년 12월 20일부터 발효되는 동시에 1차 세급 감면이 시행될 것이며 2016년 1월 1일부터 2차 세급 감면이 시행될 것이라고 공동 확인하였다. 이 때 한·중 자유 무역 협정(FTA)이 마침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한·중 FTA는 경제 글로벌화와 지역주의 확대의 현실을 감안한 후의 필연적 선택이다. 한·중 FTA의 체결은 이론적으로는 양국 간의 수출입 무역을 증가시켰으나 2015년과 2016년 양국 수출입 무역 데이터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한국 對중국의 수출 증감률은 각각 -2.7%, -6.4%였고, 수입 증감률은 -18.4%, -4.9%였다.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2015년 한국 대외 수출은 5,267.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8.0% 감소, 수입은 4,364.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9%를 감소하였고 2016년 수출은 4,954.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5.9% 감소, 수입은 4,061.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6.9%를 감소하였다. 따라서 2015년과 2016년 동안 한국의 대외 수출입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하에 對중국의 수출입이 감소하는 것을 해명할 수 있을 것 같다.<sup>50)</sup>

2017년 2월말 롯데그룹이 한국 사드 배치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나온 후에 중국에서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을 반대하는 시위를 많이 진행하였다. 사드 배치 반대 시위는 모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었고 중국 정부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하였지만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하여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 보복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2017년 한국의 對중국 간의 수출입 증감률과 무역 수지를 보면 알 수 있다.

2020년 COVID-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가운데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게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에 따라 수출물량은 2019년 12월(7.7%) 증가에서 올해 1월(-3.5%) 감소로 바뀐 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로

50)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istat/CtsMain.screen>

전환하였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설 연휴는 1월에 있고 2019년 대비 2월의 조업 일수가 늘어난다는 점들이 월 기준 수출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운송 장비(-5.0%)의 경우 COVID-19 확산에 따른 중국 내 공장 가동중단의 타격을 곧바로 입었다. 자동차 업종은 지난달 중국산 부품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내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상품 한 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의미하는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2월 전년 동월 대비 5.8% 내려 27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보다 더 많이 떨어진 탓에 교역 조건이 악화하였다.<sup>51)</sup>

앞서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COVID-19가 한·중 양국 간의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 첫째, 농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의 부족은 국제 무역에 있어서 불충분한 공급량으로 이어지고 간접적으로 무역량을 감소시킬 것이며, 둘째, 물류 및 운송의 중단으로 인해 제 시간에 교부할 수 없어 무역 마찰이 발생하여 직접적으로 무역량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중 양국 간의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을 간접적으로 미치는 요인인 농수산물 생산과 가공의 데이트를 통계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물류 및 운송의 데이터를 통해 COVID-19가 한·중 양국 간의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COVID-19가 농수산물 생산, 가공 물류 등 측면에서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미쳤으나 결과적으로 그 영향은 한국이 對중국의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입액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 발발 이후 한국이 對중국의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COVID-19가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은 한국의 10대 수입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액 비중은 한국 총수입액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농식품수출정보의 통계 자료에 의하여 지난 4년 동안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입액을 정리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51) 한국은행, "2020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 보도자료, 2020.03.25.

<표 3-1> 2017-2020년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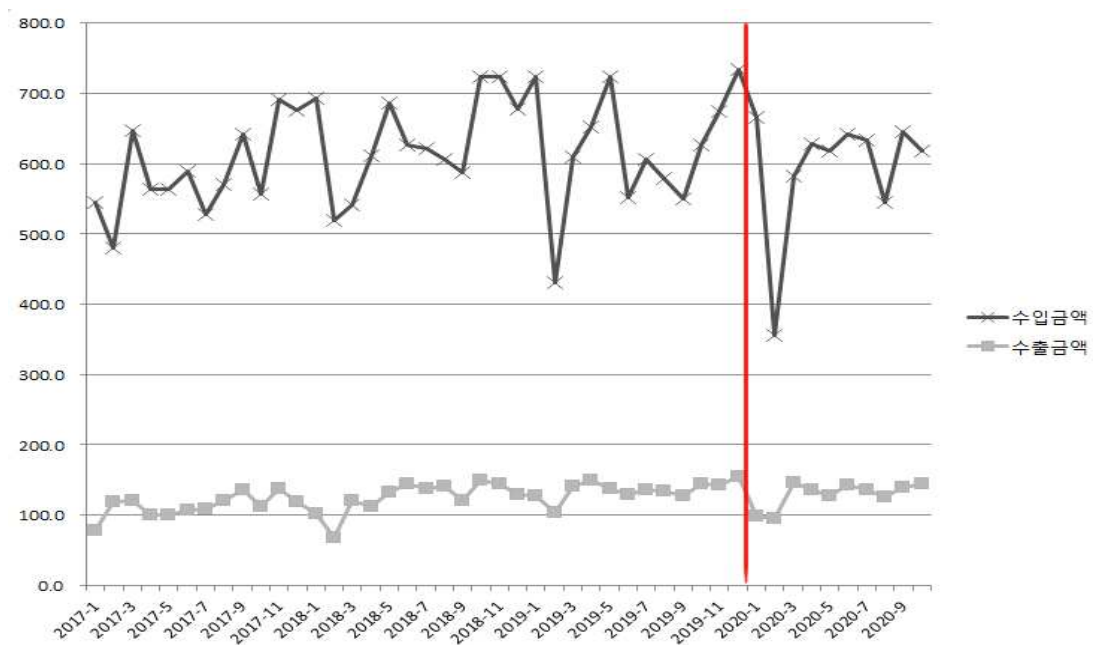
연도	수출액	수입액	연도	수출액	수입액
2017.01	78.6	466.0	2019.01	127.5	596.3
2017.02	118.8	360.9	2019.02	103.6	327.0
2017.03	120.0	526.8	2019.03	140.3	469.8
2017.04	99.7	463.9	2019.04	149.5	503.5
2017.05	100.2	463.8	2019.05	137.8	585.5
2017.06	106.9	481.9	2019.06	129.4	421.9
2017.07	109.5	419.1	2019.07	136.8	469.2
2017.08	119.9	450.9	2019.08	133.8	444.9
2017.09	136.4	505.7	2019.09	127.9	421.5
2017.10	112.4	444.9	2019.10	143.9	482.1
2017.11	138.1	554.2	2019.11	142.9	531.5
2017.12	119.2	557.2	2019.12	155.3	579.5
2018.01	101.9	591.5	2020.01	98.6	566.9
2018.02	68.6	451.4	2020.02	94.9	261.2
2018.03	120.1	420.7	2020.03	146.4	436.0
2018.04	111.9	499.1	2020.04	135.8	492.4
2018.05	132.0	553.8	2020.05	126.8	491.0
2018.06	144.7	481.6	2020.06	142.6	499.5
2018.07	137.2	485.2	2020.07	135.6	498.6
2018.08	141.0	465.5	2020.08	125.4	419.9
2018.09	120.1	468.2	2020.09	139.2	506.5
2018.10	149.9	574.0	2020.10	144.7	474.2
2018.11	144.4	579.8			
2018.12	129.9	547.1			

자료: 농식품수출정보, <http://www.kati.net/>

위의 <표 3-2>를 시각화하면 다음 <그림 3-1>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4년 간 2018년 1월과 2019년 1월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입액은 모두 전월보다 소폭 증가하였는데 2020년 1월은

전월보다 감소하였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2월의 농수산물 수입액은 모두 하락하였는데 2020년 2월의 수입액은 하락 폭이 가장 크고 4년 동안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20년 1월과 2월 동안 중국에서 COVID-19 확진자가 급히 증가하였고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도시 봉쇄, 가각 격리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인해 수출입 기업체를 포함한 대부분 기업은 직원 복귀와 생산 중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그 당시에 중국은 전국적인 힘을 기울이고 전염병이 심각한 지역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감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그 시기에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농수산물 양이 동기 대비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수출액을 보면 2017년 2월은 전월 대비 증가, 2018년 2월은 감소, 2019년 2월은 감소, 2020년 2월은 비슷한 수준에 유지하였다. 이는 COVID-19가 한국이 對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고 구체적인 제품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3-1> 2017-2020년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수출입액 변화 추이



자료: 농식품수출정보, <http://www.kati.net/>, 위의 <표 3-1>에서 정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함.

## 제2절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

### 1.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근 몇 년간 한·중 양국 간 무역의 상품 구조가 바뀌었다. 중국해관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의 수출입에 대한 산업 내 수출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전기 및 전자 제품, 기계 및 장비, 유기 화학 제품, 플라스틱 및 그 제품, 광학 및 의료 장비 제품 등이다. 이 중 한국의 전기 전자 제품 대 중국 수출은 기본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본 집약적 제품은 여전히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제품으로 전체 수출에서 안정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첨단 전자 제품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일차 제품, 일용품, 식료품 등 노동 집약적인 제품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컴퓨터는 빠르게 성장했다. 다음 2017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한국이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 제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표 3-6>은 2017-2020년 동안 한국이 對중국의 10대 수출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을 보여 준다.

<표 3-2>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수출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Top10  
(단위: 천불)

	2017	2018	2019	2020
1	HS19 (233,593)	HS03 (247,043)	HS03 (321,707)	HS19 (237,685)
2	HS03 (232,774)	HS19 (238,823)	HS19 (255,131)	HS03 (218,139)
3	HS21 (178,709)	HS21 (220,000)	HS21 (206,179)	HS21 (175,317)
4	HS22 (120,310)	HS22 (170,379)	HS22 (196,664)	HS22 (128,756)
5	HS17 (109,953)	HS17 (99,203)	HS12 (100,772)	HS20 (120,078)
6	HS12 (75,306)	HS20 (76,582)	HS20 (98,341)	HS17 (83,647)

7	HS20 (69,435)	HS12 (69,401)	HS17 (91,536)	HS12 (58,424)
8	HS16 (41,362)	HS16 (50,912)	HS16 (65,178)	HS16 (57,842)
9	HS08 (17,696)	HS01 (19,496)	HS05 (25,351)	HS24 (19,750)
10	HS04 (16,471)	HS08 (18,296)	HS04 (22,661)	HS04 (19,255)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3-2>를 보면 2017-2020년 동안 품목 HS19<sup>52)</sup>, 품목 HS03<sup>53)</sup> 품목 HS21<sup>54)</sup>과 품목 HS22<sup>55)</sup>는 한국 대 중국의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 품목 순위표에서 항상 1위, 2위,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2018년 동안 한국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 품목 5위, 2019년은 7위였던 품목 HS17<sup>56)</sup>는 2020년에 한국 대 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 6위였다. 품목 HS12<sup>57)</sup>는 한국 대 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 리스트에서 2017년 6위, 2018년 7위, 2019년 5위, 2020년 7위를 차지하였다.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 품목 HS16<sup>58)</sup>은 꾸준히 8위를 유지하였다.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수출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상품 7위에서 10위까지는 품목 변동이 빈번하였으나, 품목 HS04<sup>59)</sup>는 세 번, 품목 HS08<sup>60)</sup>는 두 번, 품목 HS01<sup>61)</sup>, 품목 HS05<sup>62)</sup>와 품목 HS24<sup>63)</sup>는 각 한 번 나타났다.

비록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수출의 상위 10위 제품들이 크게 변동하지 않았으나 COVID-19와 같은 외부 요인이 한국 對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예를 들어, 2020년 3분기까지 품목 HS20의

52)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53)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54) 각종 조제 식료품

55) 음료·주류·식초

56)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57)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 각종 종자와 과일,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58)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59)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60) 식용의 과일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61) 살아 있는 동물

62) 기타 동물성 생산품

63)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월평균 수출액은 2017-2019년의 월평균 수출액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COVID-19가 한국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 무역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목을 세분화하여 수출액의 변화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품목 19는 HS1901<sup>64)</sup>, HS1902<sup>65)</sup>, HS1903<sup>66)</sup>, HS1904<sup>67)</sup>와 HS1905<sup>68)</sup> 등 5가지 하위계층으로 구성된다. 2017-2020년 동안 한국 대 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에 있어서 품목 HS1901과 품목 HS1903의 교역이 없고 품목 HS1902는 약 60%, 품목 HS1904는 약 10%, 품목 HS1905는 30%를 차지하였다. 2017-2020년 동안 품목 HS1902의 한국 對중국 수출을 정리하면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품목 HS1902의 수출액

(단위: 천불)

연도	수출액	연도	수출액
2017.01	6,323	2019.01	7,032
2017.02	13,179	2019.02	7,005
2017.03	12,392	2019.03	10,455
2017.04	6,422	2019.04	11,035
2017.05	2,447	2019.05	10,976
2017.06	6,241	2019.06	9,765
2017.07	9,458	2019.07	10,023
2017.08	11,125	2019.08	10,847

64) 맥아추출물(extract)과 고운가루·부순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extract)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 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66) 타피오카, 전분으로 제조한 타피오카 대용물

67)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플레이크(corn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가루·부순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 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wafer)·라이스페

2017.09	13,709	2019.09	11,482
2017.10	10,882	2019.10	16,151
2017.11	15,865	2019.11	14,644
2017.12	11,371	2019.12	11,337
2018.01	7,075	2020.01	7,859
2018.02	3,371	2020.02	10,468
2018.03	8,905	2020.03	17,579
2018.04	10,110	2020.04	16,538
2018.05	10,177	2020.05	17,739
2018.06	15,595	2020.06	14,701
2018.07	7,017	2020.07	12,824
2018.08	11,517	2020.08	12,871
2018.09	9,941	2020.09	11,688
2018.10	12,914	2020.10	12,412
2018.11	5,162		
2018.12	5,522		

자료: 한국무역협회

위의 <표 3-3>은 2017년-2020년 동안 한국이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 상품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 HS19의 하위분류인 품목 HS1902의 월별 수입액을 보여준다. 2017-2020년 동안 품목 HS1902의 한국 對중국 수출 변화 추이, 그리고 2020년 1월 COVID-19 발발 후에 품목 HS1902의 수출이 COVID-19의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표 3-3>을 시각화하여 다음 <그림 3-2>를 생성한다.



<그림 3-2> 품목 HS1902의 한국 대중 수출 변화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위의 <표 3-3>에서 정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함.

위의 <그림 3-2>는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품목 HS1902의 한국 對중국 수출액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3-4>를 보면 그 동안 품목 HS1902의 수출액은 계절의 영향을 받고 크게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년 겨울과 봄이 번갈아가며 품목 HS1902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여름과 가을에는 수출액이 늘어난다. 2020년 품목 HS1902의 수출액 트렌드 차트를 보면, 2020년 1월에 상당한 감소가 있었지만 이는 과거 트렌드와 일치한다. 더욱이 여름이 오자 품목 HS1902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품목 HS1902는 파스타와 쿠스쿠스(couscous)인데 배달 식품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COVID-19로 인하여 중국 음식 배달 산업의 발전이 촉진되어 배달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품목 HS1902의 對중국 수출 성장은 COVID-19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전년에 비해 품목 HS1902의 수출 쿼터가 2020년 겨울이 오기 전에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중국에서 COVID-19가 통제되는 사실과 관련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음은 한국의 對중국 품목 HS1905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7-2020년 동안 품목 HS1905의 한국 對중국 수출을 정리하면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품목 HS1905의 수출액

(단위: 천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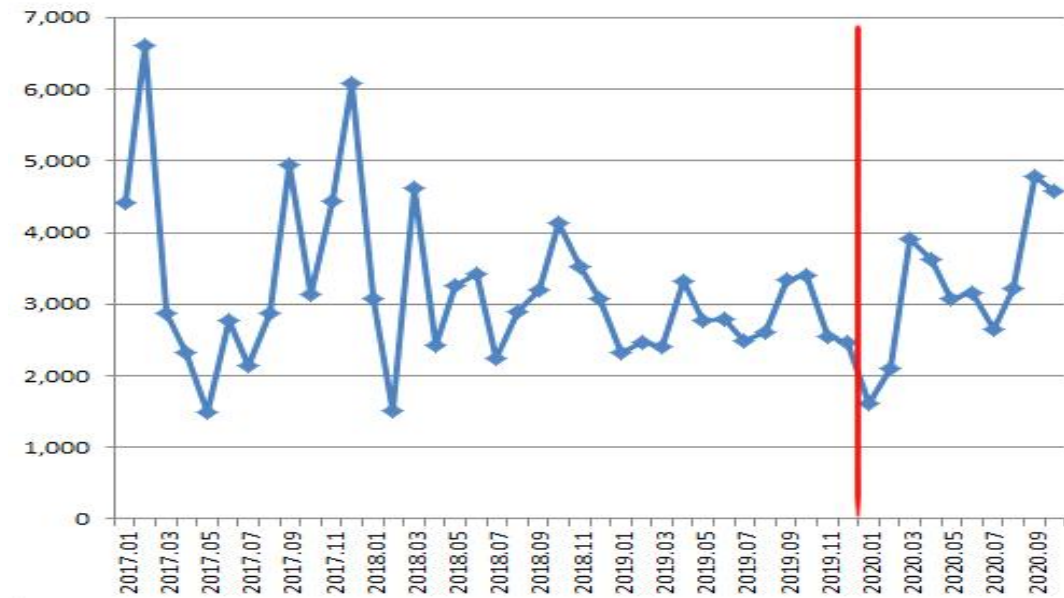
연도	수출액	연도	수출액
2017.01	4,411	2019.01	2,325
2017.02	6,605	2019.02	2,458
2017.03	2,872	2019.03	2,396
2017.04	2,334	2019.04	3,313
2017.05	1,501	2019.05	2,765
2017.06	2,765	2019.06	2,800
2017.07	2,138	2019.07	2,493
2017.08	2,874	2019.08	2,613
2017.09	4,939	2019.09	3,343
2017.10	3,147	2019.10	3,397
2017.11	4,434	2019.11	2,556
2017.12	6,077	2019.12	2,459
2018.01	3,075	2020.01	1,615
2018.02	1,517	2020.02	2,110
2018.03	4,610	2020.03	3,912
2018.04	2,417	2020.04	3,623
2018.05	3,254	2020.05	3,073
2018.06	3,424	2020.06	3,153
2018.07	2,238	2020.07	2,654
2018.08	2,884	2020.08	3,216
2018.09	3,195	2020.09	4,787
2018.10	4,129	2020.10	4,588
2018.11	3,513		
2018.12	3,066		

자료: 한국무역협회

위의 <표 3-4>는 2017년-2020년 동안 품목 HS19의 하위계층 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HS1905의 월별 수입액을 보여준다. 2017-2020년 동안 품목 HS1905의 한국 對중국 수출 변화 추이, 그리고 2020년 1월 코로나 발발 후에 품목

HS1905의 수출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표 3-4>를 시각화하여 다음 <그림 3-3>을 생성한다.

<그림 3-3> 품목 HS1905의 한국 對중국 수출 변화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위의 <표 3-4>에서 정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함.

위의 <그림 3-5>는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품목 HS1905의 한국 對중국 수출액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중의 빨간색 선은 2020년에 COVID-19가 발발한 기준을 나타낸다. 1월부터 춘절과 맞물려 수출입 업체의 공휴일이 길어지고, 2월부터는 다른 달보다 약간 짧고 교역의 양이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1월과 2월 동안 품목 HS1905의 對중국 평균 수출액은 다른 달보다 조금 줄었지만 이는 유의미한 영향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2020년 동안 품목 HS1905 수출액이 크게 변동하고 있었으나 COVID-19가 품목 HS1905의 한국 對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

품목 HS03은 HS0301<sup>69)</sup>, HS0302<sup>70)</sup>, HS0303<sup>71)</sup>, HS0304<sup>72)</sup>, HS0305<sup>73)</sup>, HS030

69) 활어

70)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71)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674), HS0307<sup>75)</sup>, HS0308<sup>76)</sup> 등 8가지 하위계층으로 구성된다.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에 있어서 품목 HS0301의 교역액이 0이고 품목 HS0302, HS0305, HS0308 등 세 품목의 교역액은 HS03에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무시해도 된다. 품목 HS0303은 HS03의 약 60%, 품목 HS0306는 약 20%, 품목 HS0307는 10%를 차지하였다. 2017-2020년 동안 품목 HS0303의 한국 對중국 수출을 정리하면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품목 HS0303 수출액

(단위: 천불)

년도	수출액	년도	수출액
2017.01	7,488	2019.01	14,015
2017.02	11,691	2019.02	11,398
2017.03	9,786	2019.03	17,328
2017.04	12,488	2019.04	10,628
2017.05	22,764	2019.05	12,007
2017.06	13,172	2019.06	14,780
2017.07	13,636	2019.07	13,212
2017.08	15,443	2019.08	11,032
2017.09	7,101	2019.09	9,040
2017.10	8,908	2019.10	17,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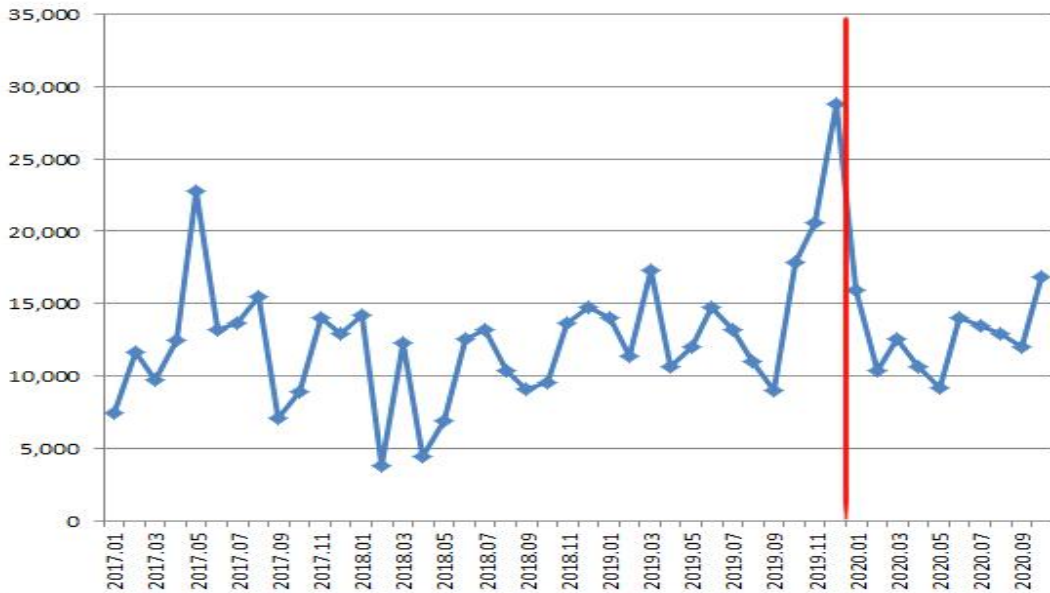
- 72)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73)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 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74) 갑각류[껍데기가 붙어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75)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76)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2017.11	14,064	2019.11	20,621
2017.12	12,941	2019.12	28,804
2018.01	14,186	2020.01	15,935
2018.02	3,788	2020.02	10,376
2018.03	12,281	2020.03	12,575
2018.04	4,474	2020.04	10,636
2018.05	6,939	2020.05	9,180
2018.06	12,535	2020.06	14,071
2018.07	13,189	2020.07	13,520
2018.08	10,418	2020.08	12,938
2018.09	9,074	2020.09	12,037
2018.10	9,536	2020.10	16,889
2018.11	13,642		
2018.12	14,797		

자료: 한국무역협회

위의 <표 3-5>는 2017년-2020년 동안 한국이 對중국 수출 상품 중에 꾸준히 3위를 차지하고 있는 HS0303의 월별 수입액을 보여준다. 2017-2020년 동안 품목 HS0303의 한국 對중국 수출 변화 추이, 그리고 2020년 1월 코로나 발발 후에 품목 HS0303의 수출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표 3-5>를 시각화하여 다음 <그림 3-4>를 생성한다.

<그림 3-4> 품목 HS0303의 한국 대중 수출 변화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위의 <표 3-9>에서 정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함.

위의 <그림 3-6>은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품목 HS0303의 한국 對중국 수출액의 변화를 보여준다. 품목 HS0303의 對중국 수출액은 2019년 4분기에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중의 빨간색 선은 2020년에 COVID-19가 발발한 기준을 나타낸다. 1월부터 춘절과 맞물려 수출입 업체의 공휴일이 길어지고, 2월부터는 다른 달보다 약간 짧고 교역의 양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2019년 12월보다 2020년 1월과 2월 동안 품목 HS0303의 對중국 평균 수출액은 큰 하락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COVID-19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017-2020년 동안 품목 HS0306의 한국 對중국 수출액을 월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품목 HS0306 수출액

(단위: 천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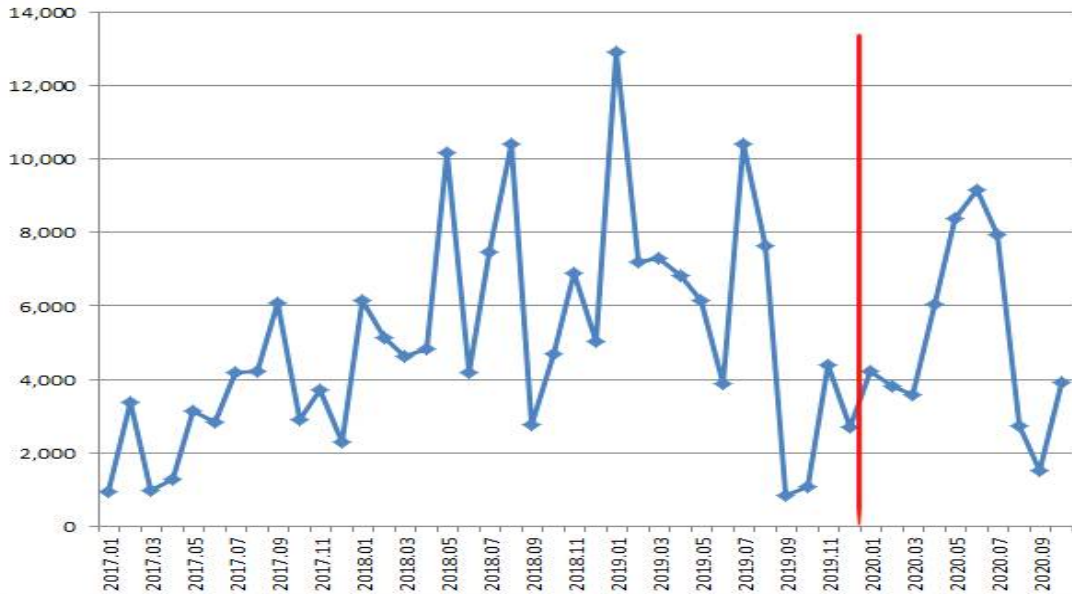
연도	수출액	연도	수출액
2017.01	952	2019.01	12,903
2017.02	3,377	2019.02	7,198

2017.03	975	2019.03	7,299
2017.04	1,266	2019.04	6,818
2017.05	3,131	2019.05	6,141
2017.06	2,841	2019.06	3,889
2017.07	4,194	2019.07	10,408
2017.08	4,234	2019.08	7,652
2017.09	6,071	2019.09	848
2017.10	2,907	2019.10	1,066
2017.11	3,731	2019.11	4,387
2017.12	2,289	2019.12	2,711
2018.01	6,154	2020.01	4,231
2018.02	5,125	2020.02	3,804
2018.03	4,638	2020.03	3,585
2018.04	4,837	2020.04	6,066
2018.05	10,181	2020.05	8,365
2018.06	4,174	2020.06	9,151
2018.07	7,477	2020.07	7,939
2018.08	10,406	2020.08	2,727
2018.09	2,754	2020.09	1,503
2018.10	4,713	2020.10	3,930
2018.11	6,909		
2018.12	5,019		

자료: 한국무역협회

위의 <표 3-6>은 2017년-2020년 동안 한국이 對중국 수출 상품 HS03 분류 중에 계속 2위를 차지하는 품목 HS0306의 월별 수입액을 보여준다. 2017-2020년 동안 품목 HS0306의 한국 對중국 수출 변화 추이, 그리고 2020년 1월 코로나 발 발 후에 품목 HS0306의 수출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표 3-6>을 시각화하여 다음 <그림 3-5>를 생성한다.

<그림 3-5> 품목 HS0306의 한국 對중국 수출 변화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위의 <표 3-6>에서 정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함.

위의 <그림 3-5>는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품목 HS0306의 한국 對중국 수출액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7-2019년 동안 매년 1월에 품목 HS0306의 수출액은 증가했다는 것과 한 해 동안 크게 변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중의 빨간색 선은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발한 기준을 나타낸다. 2020년 1월에 품목 HS0306의 수출액 변화는 역사 동기에 비해 증폭이 작았으며, 또한 올해의 수출액이 정기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따라서 COVID-19가 한국이 對중국의 품목 HS0306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품목 HS21은 HS2101<sup>77)</sup>, HS2102<sup>78)</sup>, HS2103<sup>79)</sup>, HS2104<sup>80)</sup>, HS2105<sup>81)</sup>와 HS2106<sup>82)</sup> 등 6개 하위계층으로 구성된다. 2017-2020년 동안 한국 대 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에 있어서 품목 HS2102와 품목 HS2104의 교역액이 무시

77)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78)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79)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 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80)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81) 아이스크림, 기타 빙과류

82)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할 수 있고 나머지 4 품목 중 품목 HS2106은 50%, 품목 HS2103은 30%, 품목 HS2101은 16%, 품목 HS2105는 4%를 차지하였다. 2017-2020년 동안 품목 HS2106의 한국 對중국 수출을 정리하면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7>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품목 HS2106의 수출액

(단위: 천불)

연도	수출액	연도	수출액
2017.01	6,970	2019.01	15,362
2017.02	8,350	2019.02	9,222
2017.03	10,237	2019.03	13,857
2017.04	7,272	2019.04	12,639
2017.05	7,060	2019.05	12,548
2017.06	7,745	2019.06	8,974
2017.07	8,123	2019.07	8,802
2017.08	10,469	2019.08	9,796
2017.09	11,544	2019.09	9,963
2017.10	9,598	2019.10	5,460
2017.11	14,234	2019.11	4,510
2017.12	10,559	2019.12	6,214
2018.01	10,305	2020.01	4,414
2018.02	8,206	2020.02	4,338
2018.03	10,610	2020.03	6,498
2018.04	12,517	2020.04	5,528
2018.05	12,449	2020.05	7,812
2018.06	12,195	2020.06	12,883
2018.07	12,336	2020.07	12,725
2018.08	11,951	2020.08	10,971
2018.09	12,436	2020.09	11,815
2018.10	13,681		9,996
2018.11	15,229		
2018.12	13,185		

자료: 한국무역협회

위의 <표 3-7>은 2017년-2020년 동안 한국이 對중국 수출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상품 중에 꾸준히 3위였던 HS21 중의 하위분류 1위를 차지하는 품목 HS2106의 월별 수입액을 보여준다. 2017-2020년 동안 품목 HS2106의 한국 對중국 수출 변화 추이, 그리고 2020년 1월 코로나 발발 후에 품목 HS2106의 수출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표 3-7>을 시각화하여 다음 <그림 3-6>을 생성한다.

<그림 3-6> 품목 HS2106의 한국 대중 수출 변화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위의 <표 3-7>에서 정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함.

위의 <그림 3-6>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품목 HS2106의 한국 對중국 수출액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 동안 품목 HS2106의 수출액은 하락세가 나타났고 2020년 1월과 2월 동안 전월에 비하여 조금 줄었지만 중국 춘절 연휴와 2월 교역일의 축소 때문일 수도 있다. 5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COVID-19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

## 2.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음 2017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한국이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입 제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표 3-12>는 2017-2020년 동안 한국이 對 중국의 10대 수입 제품을 보여준다.

<표 3-8>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입 Top10  
(단위: 천불)

	2017	2018	2019	2020
1	HS03 (1,025,989)	HS03 (1,258,627)	HS03 (1,086,363)	HS03 (802,756)
2	HS07 (525,572)	HS07 (535,473)	HS07 (504,561)	HS07 (404,094)
3	HS20 (367,725)	HS20 (397,923)	HS20 (396,475)	HS20 (344,565)
4	HS12 (286,814)	HS23 (319,406)	HS23 (334,934)	HS23 (307,310)
5	HS23 (255,569)	HS12 (302,418)	HS12 (329,012)	HS12 (240,533)
6	HS16 (200,672)	HS16 (248,779)	HS16 (246,363)	HS16 (186,776)
7	HS19 (149,847)	HS21 (161,140)	HS19 (167,490)	HS21 (152,556)
8	HS21 (149,794)	HS19 (154,167)	HS21 (164,889)	HS10 (150,822)
9	HS10 (133,702)	HS10 (130,170)	HS10 (136,881)	HS19 (137,442)
10	HS17 (112,948)	HS22 (108,296)	HS22 (128,924)	HS22 (129,775)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3-8>을 보면 2017-2020년 동안 품목 HS03, 품목 HS07과 품목 HS20는 한국 대 중국의 수입 상품 순위표에서 항상 1위,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한국 對중국 수입 품목 4위였던 품목 HS12는 2018-2020년 동안 꾸준히 5위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 5위였던 HS23은 2018-2020년 동안

계속 4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품목 HS16은 항상 6위를 차지한다. 한국 對중국 수입 제품 중의 7-10위는 해마다 변동이 조금 있었지만 10위에 떨어진 품목이 거의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 對중국 수입 품목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이 한국 對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품목별 수입액의 변화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고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2017-2020년 동안 한국 대 중국 수입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중에 품목 HS03의 8가지 하위계층 중에 품목 HS0302, HS0305, HS0308의 수입액이 무시될 수 있고 품목 HS0307은 HS03의약 42%, 품목 HS0303은 약 21%, 품목 HS0301은 15%, 품목 HS0306은 14%, 품목 HS0304는 6%를 차지하였다. 2017-2020년 동안 품목 HS0307의 한국 對중국 수입을 정리하면 다음 <표 3-9>와 같다.

<표 3-9>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품목 HS0307의 수입액

(단위: 천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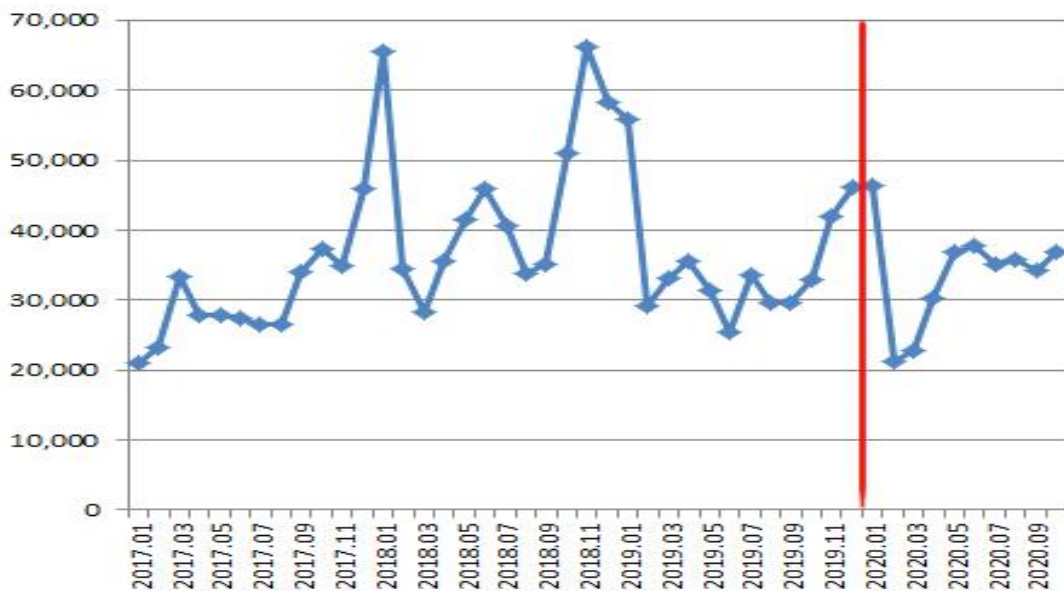
연도	수입액	연도	수입액
2017.01	20,974	2019.01	55,805
2017.02	23,316	2019.02	29,294
2017.03	33,383	2019.03	33,211
2017.04	27,860	2019.04	35,597
2017.05	27,972	2019.05	31,347
2017.06	27,345	2019.06	25,489
2017.07	26,460	2019.07	33,681
2017.08	26,644	2019.08	29,596
2017.09	33,955	2019.09	29,662
2017.10	37,282	2019.10	32,840
2017.11	34,829	2019.11	41,963
2017.12	46,016	2019.12	46,154
2018.01	65,530	2020.01	46,425
2018.02	34,457	2020.02	21,297
2018.03	28,243	2020.03	22,871
2018.04	35,509	2020.04	30,324

2018.05	41,428	2020.05	36,947
2018.06	46,025	2020.06	37,699
2018.07	40,622	2020.07	35,109
2018.08	33,746	2020.08	35,746
2018.09	35,095	2020.09	34,171
2018.10	50,963	2020.10	36,994
2018.11	66,163		
2018.12	58,246		

자료: 한국무역협회

위의 <표 3-9>는 2017년-2020년 동안 한국이 對중국 수입 상품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HS0307의 월별 수입액을 보여준다. 2017-2020년 동안 품목 HS0307의 한국 對중국 수입 변화 추이, 그리고 2020년 1월 코로나 발발 후에 품목 HS0307의 수입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표 3-9>를 시각화하여 다음 <그림 3-7>을 생성한다.

<그림 3-7> 품목 HS0307의 한국 對중국 수입 변화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위의 <표 3-9>에서 정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함.

위의 <그림 3-7>은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품목 HS0307의 한국 對중국 수

입액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중의 빨간색 선은 2020년에 COVID-19가 발발한 기준을 나타낸다. 2020년 1월 동안 중국의 춘절로 기업의 교역일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품목 HS0307의 수입액이 크게 변동되어 있지 않았다. 2월부터 품목 HS0307의 수입액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이 시기에 중국에서 COVID-19의 확산을 방지 위하여 도시 봉쇄, 기업 폐쇄, 물류 중단 등 일련의 조치가 채택되었다. 또한 4월 이후에 품목 HS0307의 수입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이는 그 시에 중국에서 COVID-19가 통제되어 기업 재개, 물류 회복 등과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품목 HS07의 HS0701<sup>83)</sup>, HS0702<sup>84)</sup>, HS0703<sup>85)</sup>, HS0704<sup>86)</sup>, HS0705<sup>87)</sup>, HS0706<sup>88)</sup>, HS0707<sup>89)</sup>, HS0708<sup>90)</sup>, HS0709<sup>91)</sup>, HS0710<sup>92)</sup>, HS0711<sup>93)</sup>, HS0712<sup>94)</sup>, HS0713<sup>95)</sup>, HS0714<sup>96)</sup> 등 14개 하위계층으로 구성된다. 2017-2020년 동안 한국 대 중국 수입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중에 품목 HS0701, HS0702, HS0707과 HS0708 등 4개의 품목의 수입액이 0으로 기록되었으며, HS0714의 수입액도 매우 적어 무시될 수 있다. 품목 HS0710은 HS07의약 44.2%, 품목 HS0706은 약 14.7%, 품목 HS0712는 14.5%를 차지하고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6% 이하를 차지하였다. 2017-2020년 동안 품목 HS0710의 한국 對중국 수입을 정리하면 다음 <표

- 
- 83)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84) 토마토 (신선, 냉장한 것)
  - 85) 양파 · 쪽파 · 마늘 ·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86) 양배추 · 꽃양배추 · 구경(球莖)양배추 · 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87) 상추[락투카사티바(Lactuca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88) 당근 · 순무 · 셀러드용 사탕무뿌리 · 선모(仙茅) · 셀러리액(celeriac) ·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89) 오이류 (신선, 냉장한 것)
  - 90)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91)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92)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 93)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 · 염수 · 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94)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 95)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 96) 매니옥(manioc) · 칩뿌리 · 살렘(salep) · 돼지감자(Jerusalemartichoke) · 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 · 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 · 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심(pith)

3-10>과 같다.

<표 3-10>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품목 HS0710의 수입액

(단위: 천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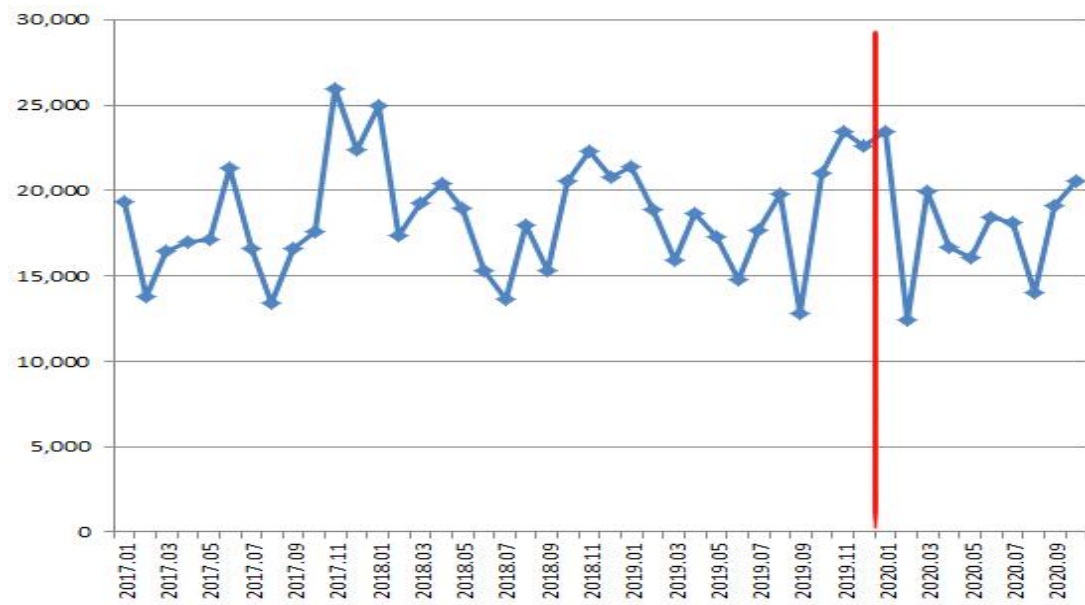
연도	수입액	연도	수입액
2017.01	19,351	2019.01	21,376
2017.02	13,829	2019.02	18,881
2017.03	16,475	2019.03	15,907
2017.04	16,992	2019.04	18,689
2017.05	17,146	2019.05	17,277
2017.06	21,311	2019.06	14,751
2017.07	16,624	2019.07	17,682
2017.08	13,378	2019.08	19,798
2017.09	16,625	2019.09	12,826
2017.10	17,620	2019.10	20,990
2017.11	25,988	2019.11	23,470
2017.12	22,411	2019.12	22,609
2018.01	24,975	2020.01	23,462
2018.02	17,329	2020.02	12,401
2018.03	19,247	2020.03	19,960
2018.04	20,393	2020.04	16,705
2018.05	18,971	2020.05	16,070
2018.06	15,338	2020.06	18,422
2018.07	13,676	2020.07	18,123
2018.08	17,953	2020.08	13,986
2018.09	15,327	2020.09	19,107
2018.10	20,528	2020.10	20,537
2018.11	22,324		
2018.12	20,787		

자료: 한국무역협회

위의 <표 3-10>은 2017년-2020년 동안 한국이 對중국 수입 상품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HS0710의 월별 수입액을 보여준다. 2017-2020년 동안 품목 HS0710의 한국 對중국 수입 변화 추이, 그리고 2020년 1월 코로나 발발 후에 품목 HS0307의 수입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표 3-10>을 시각화하여 다음 <그림 3-8>을 생성한다.

<그림 3-8> 품목 HS0710의 한국 對중국 수입 변화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위의 <표 3-10>에서 정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함.

위의 <그림 3-18>은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품목 HS0710의 한국 對중국 수입액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중의 빨간색 선은 2020년에 COVID-19가 발발한 기준을 나타낸다. 2020년 1월 동안 중국의 춘절로 기업의 교역일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품목 HS0710의 수입액이 크게 변동되어 있지 않았다. 2월에 품목 HS0710의 수입액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이 시기에 중국에서 COVID-19의 확산을 방지 위하여 도시 봉쇄, 기업 폐쇄, 물류 중단 등 일련의 조치가 채택되었다. 또한 3월에 품목 HS0710의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COVID-19 대유행의 전제 하에 품목 HS0710의 평균 월수입액은 전년도보자 작지 않았다는 것은 COVID-19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품목 HS20의 HS2001<sup>97)</sup>, HS2002<sup>98)</sup>, HS2003<sup>99)</sup>, HS2004<sup>100)</sup>, HS2005<sup>101)</sup>,



HS2006<sup>102)</sup>, HS2007<sup>103)</sup>, HS2008<sup>104)</sup>, HS2009<sup>105)</sup> 등 9개 하위계층으로 구성된다. 2017-2020년 동안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중에 품목 HS2005는 58.6%, HS2008은 25.0%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5% 이하를 차지하였다. 2017-2020년 동안 품목 HS2005의 한국 對중국 수입을 정리하면 다음 <표 3-11>와 같다.

<표 3-11> 2017-2020년 동안 한국 對중국 품목 HS2005의 수입액  
(단위: 천불)

연도	수입액	연도	수입액
2017.01	16,484	2019.01	19,388
2017.02	14,196	2019.02	13,232
2017.03	16,672	2019.03	16,475
2017.04	14,052	2019.04	18,475
2017.05	16,285	2019.05	19,267
2017.06	15,982	2019.06	16,561
2017.07	14,877	2019.07	19,405
2017.08	17,273	2019.08	17,887
2017.09	19,012	2019.09	17,036
2017.10	14,146	2019.10	20,806
2017.11	17,690	2019.11	20,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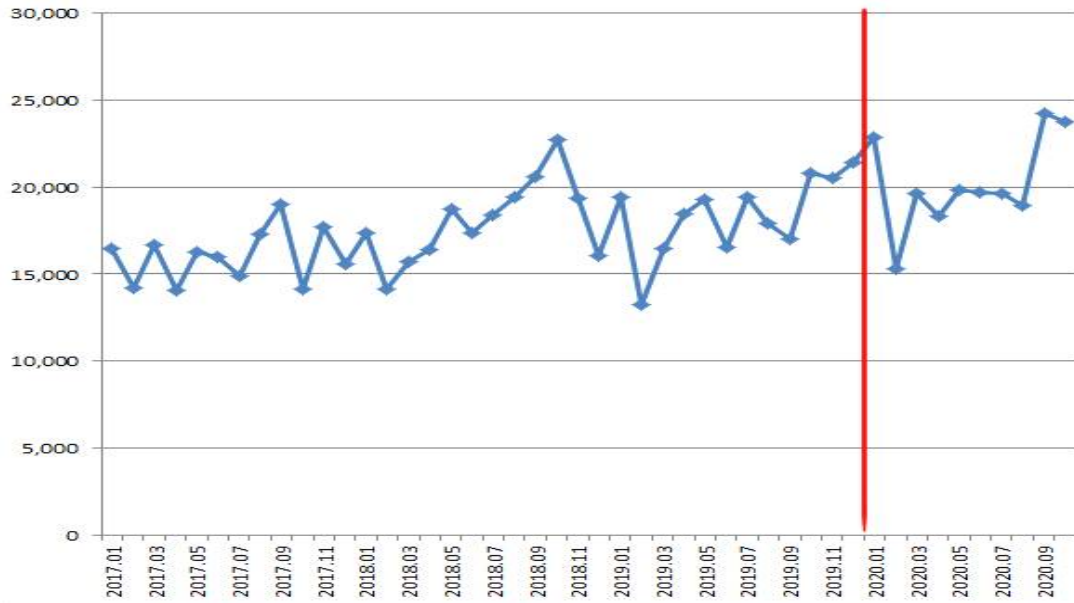
- 97)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98)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99)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100)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101)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102) 설탕으로 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류, 과피, 식물의 기타 부분
- 103)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다)
- 104)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105)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17.12	15,569	2019.12	21,385
2018.01	17,345	2020.01	22,837
2018.02	14,160	2020.02	15,325
2018.03	15,706	2020.03	19,607
2018.04	16,412	2020.04	18,306
2018.05	18,759	2020.05	19,804
2018.06	17,370	2020.06	19,662
2018.07	18,356	2020.07	19,609
2018.08	19,429	2020.08	18,921
2018.09	20,579	2020.09	24,213
2018.10	22,698	2020.10	23,712
2018.11	19,326		
2018.12	16,026		

자료: 한국무역협회

위의 <표 3-11>은 2017년-2020년 동안 한국이 대 중국 수입 상품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HS2005의 월별 수입액을 보여준다. 2017-2020년 동안 품목 HS2005의 한국 대 중국 수입 변화 추이, 그리고 2020년 1월 코로나 발발 후에 품목 HS2005의 수입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표 3-11>을 시각화하여 다음 <그림 3-9>를 생성한다.

<그림 3-9> 품목 HS2005의 한국 對중국 수입 변화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위의 <표 3-1>에서 정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함.

위의 <그림 3-9>은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품목 HS2005의 한국 對중국 수입액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중의 빨간색 선은 2020년에 COVID-19가 발발한 기준을 나타낸다. 2020년 1월 동안 중국의 춘절로 기업의 교역일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품목 HS2005의 수입액이 소폭 증가하였다. 2월에 품목 HS2005의 수입액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이 시기에 중국에서 COVID-19의 확산을 방지 위하여 도시 봉쇄, 기업 폐쇄, 물류 중단 등 일련의 조치가 채택되었다. 또한 3월에 품목 HS2005의 수입이 늘어한 후에 8월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 수준에 유지하였으며, 9월에 다시 한 번 대폭 증가를 이루었다. COVID-19 대유행의 전제 하에 품목 HS2005의 평균 월수입액은 전년도보자 작지 않았다는 것은 COVID-19가 품목 HS2005의 수입을 자극하였음을 볼 수 있다.

### 3. 무역에 미치는 영향 요약

최근 몇 년간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 중에 품목 HS1902의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품목 HS1902의 수출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통하

여 2020년 1월에 상당한 감소가 있었지만 이는 과거 트렌드와 일치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여름이 오자 배달 식품이 가장 많이 사용된 품목 HS1902(파스타와 쿠스쿠스)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COVID-19로 인하여 중국 음식 배달 산업의 발전이 촉진되어 배달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품목 HS1902의 對중국 수출 성장은 COVID-19와 무관하지 않다. 2020년 겨울이 오기 전에 품목 HS1902의 수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중국에서 COVID-19가 통제되는 사실과 관련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 중에 2위를 차지하는 품목 HS0303은 2019년 4분기에 수출액이 크게 늘어났는데 2020년에 들어오면서 수출액이 대폭 감소되었다. 이는 COVID-19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 중에 3위를 차지하는 품목 HS2106의 수출액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 동안 하락세가 나타났고 2020년 1월과 2월 동안 전월에 비하여 조금 줄었지만 중국 춘절 연휴와 2월 교역일의 축소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5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COVID-19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

2020년 1월 동안 중국의 춘절로 기업의 교역일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품목 HS0307의 수입액이 크게 변동되어 있지 않았다. 2월부터 품목 HS0307의 수입액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이 시기에 중국에서 COVID-19의 확산을 방지 위하여 도시 봉쇄, 기업 폐쇄, 물류 중단 등 일련의 조치가 채택되었다. 또한 4월 이후에 품목 HS0307의 수입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이는 그 시기에 중국에서 COVID-19가 통제되어 기업 재개, 물류 회복 등과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020년 1월 동안 중국의 춘절로 기업의 교역일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품목 HS0710의 수입액이 크게 변동되어 있지 않았다. 2월에 품목 HS0710의 수입액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이 시기에 중국에서 COVID-19의 확산을 방지 위하여 도시 봉쇄, 기업 폐쇄, 물류 중단 등 일련의 조치가 채택되었다. 또한 3월에 품목 HS0710의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COVID-19 대유행의 전제 하에 품목 HS0710의 평균 월수입액은 전년도보자 작지 않았다는 것은 COVID-19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1월 동안 중국의 춘절로 기업의 교역일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품목 HS2005의 수입액이 소폭 증가하였다. 2월에 품목 HS2005의 수입액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이 시기에 중국에서 COVID-19의 확산을 방지 위하여 도시 봉쇄, 기업 폐쇄, 물류 중단 등 일련의 조치가 채택되었다. 또한 3월에 품목 HS2005의 수입이 늘어한 후에 8월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 수준에 유지하였으며, 9월에 다시 한 번 대폭 증가를 이루었다. COVID-19 대유행의 전제 하에 품목 HS2005의 평균 월수입액은 전년도보자 작지 않았다는 것은 COVID-19가 품목 HS2005의 수입을 자극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한·중 수출입 거래가 가장 많은 3종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품목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COVID-19가 한국의 대 중국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영향의 정도를 확인하려면 보다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트렌드의 관점에서 볼 때 COVID-19는 한국의 중국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해 한·중 양국 간 항공 물류와 해운 물류가 많이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COVID-19가 한국의 對중국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COVID-19가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현재의 데이터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제4장 COVID-19 확산에 따른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 전략

전 세계 범위에서 COVID-19의 확산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일본과 한국에서 COVID-19가 발발한 후, 이것이 한중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영향은 단계적이고 일시적일 뿐이며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한·중 무역의 건전한 발전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COVID-19가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며 관련 제품의 수입은 꾸준한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COVID-19의 후기 단계에서 농수산업 생산 및 가공 능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COVID-19의 전염병을 통제하지 못해 계속 확산되면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서로 연결되고 분리될 수 없는 글로벌 산업 체인과 공급망의 맥락에서 해외 COVID-19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의 COVID-19의 확산은 중국 대외 무역 회사의 작업 재개 및 생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단계에서 기업의 주요 관심사는 산업 체인의 상류 및 하류 공급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COVID-19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조정 하에 심층적인 다자간 무역 협의 및 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과 산업의 2가지 측면으로 한·중 양국이 COVID-19를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1절 정책적 대응 전략

COVID-19 대유행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 무역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각국의 방역 정책으로 인한 물류 효율성이 낮은 것이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COVID-19의 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각국의 수출 제품에 대한 규제도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이다.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필수 의료 장비가 엄청나게 부족해지면서 많은 국

가가 적절한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필수품(국방, 식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채택하는 반면에 다른 국가는 이러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줄였다.<sup>106)</sup> 따라서 국가의 수출입 무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부터 시작하여 COVID-19 대응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 1) 농수산업 노동 인력 전략

중국과 한국의 상황은 약간 다르며, 중국은 농업 대국으로서 농업 노동력 기반이 거대한 반면 한국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양국은 농업 노동력 해결 측면에서 약간 다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1) 빈곤 인력 고용 촉진

李紅林(2020)에서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방역과 탈빈곤을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07)</sup> 중국의 경우 농촌 지역은 COVID-19 유행에 대응하고 빈곤 완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빈곤 가구 고용 촉진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빈곤 인력 고용을 위한 특별 재정 빈곤 완화 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환경 미화, 방역, 소독, 봉쇄를 위한 당직 등 일시적으로 추가된 직책은 빈곤 인력의 고용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 농촌 복지 보조금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방역 자재 생산 및 생필품 생산 등 핵심 기업에 빈곤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일회성 고용 보조금 및 대출 세금 지원을 제공한다. 농번기와 농업 생산의 요구를 결합하여, COVID-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외출할 수 없는 빈곤 가정의 노동력을 흡수하도록 농민 협동조합 및 가족 농장과 같은 새로운 사업체를 장려한다. 중국 동서부의 빈곤 퇴치 협력을 위한 농촌 노동력 수요지역과 수출지역의 정확한 도킹을 강화하며, 마스크 등 방역 보호 물품을 제공하고, 빈곤 지역 근로자를 일자리로 복귀하여 일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조직한다.

#####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촉진

106) St. Louis Fed, "International Trade Policy During COVID-19", Economic Synopses, 2020.

107) 李紅林. "防疫脫貧兩不誤, 促進就業保增收-鐵東扎實做好疫情期間貧困人口就業". 四平日報. 2020. 03.18.

한국의 경우 농업 노동 인력의 부족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통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입국이 어려워지고 COVID-19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어려워지며, 이에 따라 인건비 상승도 농업 노동 인력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황의식 외(2020)는 첫째, 공공 농업 고용 서비스(예를 들어: 일자리 소개 및 알선)의 강화를 필요로 하여, 둘째, 농작업 인력의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셋째, 연간 한국 국내와 해외의 COVID-19 확산이 지속된다면 고용 유지 및 실업 완충을 위한 지원금 등 농작업 노동자의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08)

## 2) 농수산물 가공업 전략

石智豊(2020)에 따르면 대외 무역 업체들은 2월에 오더를 걱정하기 때문에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했고, 3월과 4월에 오더를 받기 두려워했고, 발송된 상품에 대해 비용을 못 받을까봐 걱정했다.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대외 무역 중소기업들은 생존의 어려움을 겪었다. COVID-19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전례가 없었으며 2003년 SARS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영향을 보다 훨씬 크다.109) 농촌의 중소기업은 농수산물 가공업과 농촌 노동 인력 흡수의 주된 힘이다. COVID-19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엄격하게 실행하는 동안 모든 지역은 카운티를 단위로 농촌 중소기업의 작업 재개 및 생산 계획 수립을 촉진해야 한다. 저위험 지역은 타지역 감염자 수입을 예방하면서 농촌 중소기업의 작업 재개와 생산을 충분히 추진하고, 고위험 지역은 사전에 준비하고 COVID-19가 효과적으로 통제된 후 적시에 질서 있게 기업 재개와 생산을 해야 한다. 원재료 공급 부족, 제품 판매 부진, 노동력 및 자금 부족, 작업 및 생산 재개 시 보호 장비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인 농업 산업화 기업을 위한 조정 및 연락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대출이자 할인, 이자 이연, 세금 감면, 전기와 가스에 대한 특혜 토지 사용 등 중소기업의 작업 재개 및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 및

108) 황의식 외, “코로나10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2020.7. pp.1-259.

109) 石智豊(2020). “新冠肺炎疫情下中小外貿企業優劣勢分析和發展對策”. 經營管理者, 2020(11). 100-101.



기업 분류에 따른 정책을 구현한다.

### 3) 물류 운송 전략-무역 통관 촉진

COVID-19가 확산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국제선 항공편 및 해운을 취소하였다.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에 따르면 2020년 1-5월 전국 항구 대외 무역 물동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1.3%, 0.3%, -0.6%, 2.4%, 0.9%였다.<sup>110)</sup> 따라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는 동시에 주요 국가의 항공편 및 해운 조건부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역 제품 및 일상 용품에 대한 글로벌 무역의 촉진 및 자유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 중국 정부는 항공편의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sup>111)</sup> 방역 제품의 생산 능력을 적극적으로 복원·증대하고, 시급히 필요한 방역 제품을 주요 피해국에 수출함으로써 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 방역 제품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전염병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글로벌 산업 체인과 무역 체인은 중국의 수출입 회복 성장을 지원하여 글로벌 무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복잡한 외부 환경과 COVID-19가 확산된 국제 경제 및 무역 상황에 직면하여 한국의 對중국 전략적 결단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한·중 양국은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면서 서로 돕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공동으로 억제하고, 방역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방역 정보를 서로 제공하여 전염병이 양국 경제 및 쌍무 무역에 미치는 절벽과 같은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방역을 위한 격리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농수산물 운송을 위한 빠른 통관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12)</sup> 한편으로는 한·중 자유 무역 구역에서 무역과 투자의 촉진과 자유화를 심화 및 개선하고 관세를 대폭 낮추고 무역 성장 포인트를 확대해야 한다.

### 4) 농수산물 무역 전략

110)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 <https://data.stats.gov.cn/>

111) 신경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국 경제 CHINA FOCUS] ” 한·중 항공편 주 20회 증편, 이달 말 전세기 30편도 준비. 중앙일보. 2020.09.04.

112) 周誌鵬, 梁慧芯. “新冠肺炎疫情對我國農產品價格的影響”. 價格月刊. 2020. 11. p10.

### (1) 국제 협력 전략

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특정 국가의 힘만으로는 바이러스를 제어할 수 없다. 중국 국가 주석 習近平은 한국 대통령 문재인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지도자와 통화할 때 국제 협력이 방역과 글로벌 무역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고 하였다.<sup>113)</sup> 다자간 국제기구를 적극 추진하여 COVID-19 확산 방지 및 통제를 위한 협의와 협력을 해야 한다. 첫째, 중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으로서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제적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안보리 회원국 간의 협의를 적극 추진할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유엔 다자간 체제 하에 있는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관련 국가 및 지역과의 전염병 예방 수행을 옹호한다.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심층 협의 및 협력이 필요로 한다. 현재 중국은 효과적인 방역 및 방제 경험을 적극 추진하고 방역 정보의 교류를 강화하며 다자간 체제 하에서 방역 및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국가의 치료제와 백신 공동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세계 보건기구 (WHO)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중국은 전문적인 전염병 문제에 대한 WHO의 협의, 조정 및 협력을 적극 추진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국제 전문 의료 기관 및 기관을 동원하여 상호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공중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발전도상국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셋째는 국제 사회에 가입된 특별 인출 권의 비율을 높이도록 요청하고 IMF 특별 무이자 대출을 사용하여 전염병에 걸린 국가에 대한 무상 원조를 일방적으로 늘리는 대신 전염병에 걸린 국가의 무역 및 투자 회복을 촉진하도록 돕는다. COVID-19의 확산을 통제되어 대부분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야 한국의 對중국의 무역이 점점 회복될 것이다. 넷째, 목표 수출국의 내수 시장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수출 여건 변화를 즉시적으로 파악하고, 인근의 다른 국가 등 새로운 수출입 시장을 모색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검역 제도 강화

한국과 중국은 모두 WTO 협약국이며, 양국이 또한 이미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자유무역 원칙에 근거하여 한·중 양국은 여러 차례 협상하여 수입 관세를

113) 習近平, “團結合作是國際社會戰勝疫情最有力武器”, 求知, 2020, 5, pp.4-12.

내렸다. 하지만 이는 각국의 보호장치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 관세 외에 비관세장벽은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 각국은 COVID-19 발생 이후 농수산물 품질 검사와 검역 기준을 높였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의 품질에 대한 검사와 검역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수출입 제목이 목적지에 도착한 뒤 문제가 발견되고 빚어지는 각종 분쟁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양국 농수산물 무역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촉진한다. 중국해관총서(中國海關總書)는 수출입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검역 감독을 요구하며, 대외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sup>114)</sup>

### (3) 무역 마찰 해소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전문가 육성

한·중 양국 간의 무역이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무역 마찰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COVID-19와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해 제품 출고가 늦어지거나 제 시간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생긴 무역 마찰의 해결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무역 마찰의 해결은 한·중 간 무역 발전의 최대 현안이 된다. 최근 몇 년간 민감했던 농수산물 무역 마찰도 적지 않았고 식품위생에도 마찰이 있었다. 한·중 FTA로 빚어질 수 있는 무역 마찰과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정부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고 육성해 상호협상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sup>115)</sup> 양국 정부는 무역 마찰과 피해를 보는 수출입 기업에 법과 기술을 지원해 해당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농수산물 검역 문제로 인한 무역 마찰을 협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농수산물 검역 기준과 규정을 만들어 상대와 협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등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 제2절 산업적 대응 전략

114) 海關總署, “加強口岸疫情防控 嚴格進出口食品農產品檢驗檢疫監管”, 中國食品, 2020, 9, p47.

115) 김기운, “한·중 FTA 시대에 한·중 농산물 교역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안”, 부동산경영, 2017(16), pp.245-263.

## 1) 국내 산업화 업그레이드 촉진

농업 생산 능력의 지속적인 회복을 보장하고 한·중 양국 국내 산업화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중국 농업 생산의 대규모 과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생산 회복에 필요한 대출, 토지 이용 및 기술 서비스를 지원한다. 미국, 호주와 달리 한국과 중국의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이 중소기업들은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생산 및 공급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며 국가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의 안정성과 직결되어 있고 생산, 공급 목표가 예정대로 완료되는 여부에 달려 있다. 또한 개별의 농부가 가족 농장(목장)으로 변경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개별의 농부는 소규모 기업으로 변모하고 소규모 기업은 중등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여러 정책적과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협동조합 및 기타 조직 모델을 통해 생산의 열정, 이니셔티브 및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업체인 펀드, 시장, 기술 및 정보 서비스를 통합하여 산전, 중반 및 사후 생산 비즈니스 조직의 개선을 달성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제 경쟁력의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도울 뿐만 아니라 촉진할 것이고 농업 생산 능력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 2) 산업의 구조조정

중국은 큰 농업 국가이며 항상 농업을 주요 경제 기반으로 사용했다. 1차 산업이 국민생산총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6.6%에서 2019년 7.1%로 떨어졌다.<sup>116)</sup> 농업의 내부 구조는 큰 변화를 겪었지만 (농업, 임업, 축산, 어업의 총 생산 가치는 농업 생산 가치의 비율이 감소하고 축산업과 어업의 생산 가치는 증가), 전반적인 통합 발전 측면에서 자원 배분은 경제적이지 않아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대량의 토지 자원, 인력 및 기타 자원이 이러한 산업에 투자되지만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은 중국의 상황과 조금 다르지만 농업 구조적 불균형도 있다. 따라서 국제 무역에 있어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농업의 구조

116)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 <https://data.stats.gov.cn/>

조정은 다음과 같은 전략이 있다. 첫째, 고품질 품종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의 고품질 비율을 높여야 한다. 현재 중국의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품질 비율은 매우 낮고 쌀 등 곡물 제품의 고품질 비율은 일반적으로 약 10% 정도이고 다른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의 고품질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종합적인 고품질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비율은 약 15%를 차지한다.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품질 향상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품질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비율을 높이면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과잉 공급 모순을 해소 할 수 있다. 과거에 중국의 농업 생산은 오랫동안 양에 초점을 맞춰 왔으며, 이것이 현재 과잉 공급의 주된 원인이다. 양질의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생산을 늘리는 것은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전체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과잉 공급 모순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현실적 선택이다.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의 고품질 비율을 높여 농업 과학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농업 산업 구조의 조정 및 최적화 정도는 기술 진보에 달려 있다. 농업 산업 구조의 조정은 국가 여건에 근거한 과학 기술 진보를 바탕으로 현대 농업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추진 및 활용하고 과학 식재 및 과학 육종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키며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및 가공품의 품질 율과 생산율을 높여야 한다. 둘째, 농업의 레이아웃을 조정하고 지역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농업 산업 구조의 전략적 조정에서는 전국의 농업 구조 전반에 집중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지역의 농업 지역 구조도 조정해야 한다. 국가의 농업 산업 구조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각 지역의 지역 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지역마다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서로 다르며, 장점과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피하고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특유의 지역 농업 산업 구조를 형성해야만 국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중국에서보다 유리한 지위를 구축하고 활발한 국가 농촌 산업 구조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유지한다.

## 제5장 결론

### 제1절 결론 요약 및 시사점

한·중 양국의 무역 관계를 통하여 국내 자원의 조합을 이룰 수 있고 경제가 성장되며 무역 파트너로서의 지위도 굳게 다지게 될 수 있다. 한·중 무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은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경제 발전 추세에도 부합된다. 동시에 동남아 지역경제 통합의 과정에도 매우 큰 촉진 역할을 할 것이고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적극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양국 무역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양국의 지속적 무역 발전에 의의가 있다.

2020년 1월 이후 COVID-19의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어 이미 취약한 세계 경제 회복이 악화되었다.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글로벌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정상적인 기능 실패는 글로벌 무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산업 체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갑작스런 공공 위생 사건은 농수산품의 생산, 가공, 물류 및 목표 시장을 포함하여 농수산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주요 링크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품 및 그 조제품 수출입의 품목별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COVID-19가 양국 수출입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한국의 對중국 주요 농수산품 및 그 조제품 수출입액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對중국 수출 농수산품 및 그 조제품 중 품목 HS1902, 품목 HS1905, 품목 HS0303, 품목 HS0306, 품목 HS2106, 수입 상품 중 품목 HS0307, 품목 HS0710, 품목 HS2005 등은 COVID-19의 영향을 어느 정도로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몇 년간 한국 對중국 농수산품 및 그 조제품 수출 중에 품목 HS1902의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품목 HS1902의 수출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2020년 1월에 상당한 감소가 있었지만 이는 과거 트렌드와 일치한다고 판단

될수 있다. 그러나 여름이 오자 배달 식품이 가장 많이 사용된 품목 HS1902(파스타와 쿠스쿠스)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COVID-19로 인하여 중국 음식 배달 산업의 발전이 촉진되어 배달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품목 HS1902의 對중국 수출 성장은 COVID-19와 무관하지 않다. 2020년 겨울이 오기 전에 품목 HS1902의 수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중국에서 COVID-19가 통제되는 사실과 관련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 중에 2위를 차지하는 품목 HS0303은 2019년 4분기에 수출액이 크게 늘어났는데 2020년에 들어오면서 수출액이 대폭 감소되었다. 이는 COVID-19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 중에 3위를 차지하는 품목 HS2106의 수출액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 동안 하락세가 나타났고 2020년 1월과 2월 동안 전월에 비하여 조금 줄었지만 중국 춘절 연휴와 2월 교역일의 축소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5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COVID-19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

2020년 1월 동안 중국의 춘절로 기업의 교역일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품목 HS0307의 수입액이 크게 변동되어 있지 않았다. 2월부터 품목 HS0307의 수입액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이 시기에 중국에서 COVID-19의 확산을 방지 위하여 도시 봉쇄, 기업 폐쇄, 물류 중단 등 일련의 조치가 채택되었다. 또한 4월 이후에 품목 HS0307의 수입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이는 그 시기에 중국에서 COVID-19가 통제되어 기업 재개, 물류 회복 등과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020년 1월 동안 중국의 춘절로 기업의 교역일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품목 HS0710의 수입액이 크게 변동되어 있지 않았다. 2월에 품목 HS0710의 수입액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이 시기에 중국에서 COVID-19의 확산을 방지 위하여 도시 봉쇄, 기업 폐쇄, 물류 중단 등 일련의 조치가 채택되었다. 또한 3월에 품목 HS0710의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COVID-19 대유행의 전제 하에 품목 HS0710의 평균 월수입액은 전년도보자 작지 않았다는 것은 COVID-19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1월 동안 중국의 춘절로 기업의 교역일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품목

HS2005의 수입액이 소폭 증가하였다. 2월에 품목 HS2005의 수입액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이 시기에 중국에서 COVID-19의 확산을 방지 위하여 도시 봉쇄, 기업 폐쇄, 물류 중단 등 일련의 조치가 채택되었다. 또한 3월에 품목 HS2005의 수입이 늘어한 후에 8월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 수준에 유지하였으며, 9월에 다시 한 번 대폭 증가를 이루었다. COVID-19 대유행의 전제 하에 품목 HS2005의 평균 월수입액은 전년도보자 작지 않았다는 것은 COVID-19가 품목 HS2005의 수입을 자극하였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정 품목의 교역량을 분석하여 COVID-19가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입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COVID-19가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볼 때 향후의 오랫동안 COVID-19는 계속 퍼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중 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제2절 한계점 및 향후의 연구 방향

본 연구는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중 교역량이 10위에 올라간 품목만을 분석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른 품목이 COVID-19의 영향을 받아 교역액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품목을 분석 대상을 삼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그리고 농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 물류 운송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COVID-19가 한의 對중국 수출입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로 남기로 한다. 또한 2020년 11월까지 COVID-19의 확산 현황을 보면 COVID-19는 단시간에 통제되기 어려워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COVID-19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COVID-19의 지속적 확산으로 농업 생산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면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공급 체인이 될 것이고 그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장기적인 방역 대응에 대비해야 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 강수경, “외국인 근로자 공급 제약이 축산 농가 잉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김군수, 성영조, 한영숙,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산업 전략”, 이슈&진단, 2020(411), pp. 1-25.
- 김기운, “한·중 FTA 시대에 한·중 농산물 교역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안”, 부동산경영, 2017(16), 245-263.
- 김나영, 안덕근, “보건의료 통상과 코로나 19 사태: 현황과 쟁점”, 국제지역연구, 2020, 29(2), pp.1-38.
- 김우정, “코로나19 영향으로 8월 국내 무역항 물동량 하락세: 컨 물동량, 부산항 5.6%, 광양항 19.4% 감소. 인천항 10.3% 증가”, 한국해산문제연구소 월간 해양한국, 2020(10), pp.98-100.
- 김용준, 이수행, 박정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농업,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이슈&진단, 2020(415), pp. 1-25.
- 곽동철, “코로나19 이후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와 통상규범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통상법률, 2020(148), pp.76-113.
- 구양미, “코로나19와 한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C)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20, 23(3), pp.209-228.
- 박상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 국방정책연구, 2020, 36(3), pp.59-86.
- 박성욱,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및 정책 대응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29(6), pp.3-10.
- 박희석 외,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20, (297), pp.1-32.
- 서홍석, 순병민, 김충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20(189), pp.1-22.
- 오병기, “코로나-19 지역 경제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정책 과제”, 한국자치학회

- 월간공공정책, 2020, 174, pp.61-64.
- 이병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접경지역 발전 전략”,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20, 23(3), pp.229-246.
- 이수진, 조현지, 김민지, 진광선, 주소윤, 이재용,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각국의 정책 동향”, 국토, 2020(6), pp.96-109.
- 이창주, “코로나-19 국면 하의 중국 일대일로 분석”, 중국지식네트워크, 2020, pp.139-181.
- 임송수, “코로나-19가 국제 식량 수급과 무역에 미친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9(4), pp. 101-117.
- 정대영, 이수진, “코로나19, 여행의 미래를 바꾸다”, 경지연구원 이슈&진단, 2020, (419), pp.1-25.
- 정승철, “코로나19(COVID-19)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과 2020년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 제주평화연구원 JPI정책포럼, 2020(6), pp.1-21.
- 윤서노, 하지희, “코로나19 확산이 농식품 소비 행동에 미친 영향”, 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pp.173-186.

## 2. 국외 문헌

- 陳少輝, “SARS對安徽省進出口的影響和對策”, SARS與經濟, 2003, pp.6-9.
- 福建省海洋與漁業局科外處, “針對SARS影響福建提出水產品進出口貿易應對措施”, 中國漁業經濟, 2003.
- 葛穎恩, 楊佳琳, “基於對比分析的新冠疫情對航運業的影響研”, 交通信息與安全, 第三十八卷, 2020, pp.10-18.
- 海關總署, “加強口岸疫情防控,嚴格進出口食品農產品檢驗檢疫監管”, 中國食品, 2020, 9, p47.
- 黃兆銀, “SARS挑戰中國對外貿易”, 武漢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3, 56(4), pp.408-409.
- 焦知嶽, “SARS對我國外貿的潛在影響”, 經貿論壇, 2003, pp.3-5.

- 劉花, “新冠肺炎疫情對外貿影響的研究”, 價格月刊. 2020, pp.90-94.
- 劉淑芳, 楊虎濤(2020), “新冠疫情對中日韓三國旅遊業的影響研究”, 亞太經濟, pp.21-29.
- 陸育新, “SARS對中日貿易的影響”, 市場評析, 2003, pp.28-30.
- 潘建偉, 郭苗苗, “新冠疫情對農產品流通的影響分析”, 商業經濟研究, 2020, 11, pp.155-157.
- 沈國兵, “新冠肺炎疫情全球蔓延對國際貿易的影響及紓解舉措”, 人民論壇·學術前沿, 2020, (007), pp.85-90.
- 石智豐(2020). “新冠肺炎疫情下中小外貿企業優劣勢分析和發展對策”. 經營管理者, 2020(11). pp.100-101.
- 童商, “非典對我國家電出口影響有限”, 中國電子報, 2003, pp.1-7.
- 王俊生, “建交以來的中韓關係: 動力, 機遇與挑戰”, 雲夢學刊, 2019, 40(5), pp.71-77.
- 習近平, “團結合作是國際社會戰勝疫情最有力武器”, 求知, 2020, 5, pp.4-12.
- 張力, “疫情背景下中國對外貿易發展現狀及對策分析”, 經濟觀察, 2020, pp.35-36.
- 張壹, 吳瑩, 汪壽陽, 徐山鷹, “SARS對中國進出口貿易的影響分析”, 管理評論, pp.23-27.
- 趙平, 丁雲, “新冠肺炎疫情對我國出口貿易的沖擊及對策”, 中國經貿導刊(中), 2020, pp.38-39.
- 周誌鵬, 梁慧芯, “新冠肺炎疫情對我國農產品價格的影響”, 價格月刊, 2020, 11, pp. 6-11.
- Leibovici, Fernando & Santacreu, Ana Maria, “International Trade of Essential Goods During a Pandemic”. Working Paper 2020-010B,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2020.
- Shaun Tanger et al., “Economic Impacts of COVID-19 on Food and Agricultural Markets”, CAST Commentary, 2020.
- St. Louis Fed, “International Trade Policy During COVID-19”, Economic Synopses, 2020.

### 3. 기타 자료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신경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국 경제 CHINA FOCUS]: 한·중 항공편 주 20회 증편, 이달 말 전세기 30편도 준비”. 중앙일보. 2020.09.04.

畢馬威中國, 『中國經濟觀察』, 2020.

普拉米, “新冠疫情暴發國家壹次性塑料使用量暴漲超250%! 封城之後天空都變藍了”, 2020.

李紅林. “防疫脫貧兩不誤, 促進就業保增收-鐵東扎實做好疫情期間貧困人口就業”. 四平日報. 2020. 03.18.

中國貿易投資網, “2020年中國銅進口量將再次下降”, 2020.02.24.

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http://www.customs.gov.cn/>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http://www.mofcom.gov.cn/>

中華人民共和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http://www.nhc.gov.cn/>

中華人民共和國國家移民管理局 <https://www.nia.gov.cn/index.html>

worldmeters <https://www.worldometers.info/>

Johns Hopkins University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un.org/>

WTO [https://www.wto.org/english/res\\_e/res\\_e.htm](https://www.wto.org/english/res_e/res_e.htm)

## 국문초록

COVID-19가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요요

무역학과

제주대학교 대학원

COVID-19가 발발 후에 각국 정부가 전통 필수품인 식품(7.9%)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식품의 90% 이상이 특정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COVID-19 발생 초기 방역 정책으로 첫째, 농업 생산 인원이 줄었고 둘째,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가동을 중단했으며 셋째, 물류 수송이 중단되어 중국의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필수 물자는 대부분을 수입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는 2017-2020년 동안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입액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COVID-19가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통하여 비록 단기적으로는 COVID-19가 한국의 對중국 농수산물 및 그 조제품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체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갑작스런 공공 위생 사건은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물류 및 목표 시장을 포함하여 농수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주요 링크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물류 및 목표 시장을 포함하여 정책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으로 COVID-19를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향후의 오랫동안 COVID-19는 계속 퍼질 가능성이 높다. 생필품인 농수산물은 COVID-19로 인한 영향이 단기적으로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의 위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에 직면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완치약이 개발되기 전에 반드시 장기적인 대응 전략에 대비해야 한다.

핵심어: COVID-19, 농수산물 무역, 영향, 대응 전략

##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COVID-19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its Preparation Trade in  
Korea to China

ZHOU LUYAO

Department of Trad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many countries levied high tariffs on food(7.9%), a traditional necessity, and more than 90% of food products were subject to certain types of non-tariff barriers. As for the early quarantine policy of COVID-19 outbreak, first, the number of agricultural production personnel decreased, second,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ompanies stopped operations, and third,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were stopped, so the 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s in China could not keep up with demand. Therefore, most of the essential supplies for everyday life should be resolved with income.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COVID-19 on Korea's agricultural trade with Chin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mport and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Korea during 2017-2020.

From the analysis results, it can be seen that in the short term, COVID-19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Korea's import and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to China. Nevertheles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industrial chain, these sudden public hygiene events have affected all major links related to the import and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the producing, processing, shipping and trading of agricultural product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a strategy to respond to COVID-19 in terms of policy and industry. COVID-19 is likely to continue to spread over the years to come.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hich are a necessity, have little impact from

COVID-19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there may be a risk of facing a decline in demand due to economic contraction. Therefore, before a cure for novel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 is develop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a long-term quarantine response.

Keyword: COVID-19, Agricultural products trade, Impact, Response strategy